

美國의 朝鮮遠征과 第1次 朝·美戰爭(1871)

金 源 模*

- | | |
|-----------------|-----------------------|
| I. 序 言 | V. 朝·美戰爭論 |
| II. 아시아艦隊의 朝鮮遠征 | VI. 江華海峽探測과 第1次 朝·美戰爭 |
| III. 로우公使의 對清交涉 | VII. 朝·美兩國의 對應 |
| IV. 朝·美交渉 | VIII. 結 論 |

I. 序 言

美國은 1844년에 美淸 望廈條約에 의하여 中國과 通商關係를 이룩하였고, 10년 후인 1854년에 메리提督의 日本遠征으로 對日砲艦外交에 의해 드디어 日本을 開港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中國과 日本사이에 있는 朝鮮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 美國政府가 朝鮮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866년 8월 제너럴·셔먼號사건에서 비롯된다. 이로부터 1868년 시워드國務長官은 두차메나 朝鮮開港을 시도했으나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拙稿, 「美國의 最初 朝鮮開港試圖」 史學志 10輯 참조). 제너럴·셔먼號사건과 관련하여 朝鮮遠征을 決行하게 된 것은 그란트行政府의 피쉬國務長官에 의하여 실행된 것이다.

南北戰爭直後에 새로 改編發足한 아시아艦隊의 本務는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의 美國商船의 保護, 美國市民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였다. 그러므로 1866년 8월 平壤大同江에서 제너럴·셔먼號가 燒破되고, 그 乘務員 24名이 沒殺된 것은 美國으로서는 衝擊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美國政府는 朝鮮海域에서의 遭難船員 救恤問題가 시급한 課題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痛感하기에 이르렀다.

美國政府는 1800年初부터 地中海艦隊의 砲艦外交活動을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아시아 極東海域, 즉 中國과 日本에 대해서 砲艦外交를 실시해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1871년 그란트大統領은 朝鮮遠征의 임무를 로우公使와 로저스提督에게 부여한 것이다. 아시아艦隊司令官 로저스提督은 地中海艦隊의 砲艦外交의 전통, 특히 메리提督의 정신적 영향을 받은지라 南北戰爭이래 최대의

*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副教授, 西洋史

兵력과 장비를 동원한 大艦隊를 이끌고 有事時 武力行使를 不辭하고라도 朝鮮을 開港시켜서 通商關係를 수립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朝鮮遠征의 目的, 즉 朝鮮開港과 通商條約締結이 어렵다면, 적어도 遭難船員救恤을 위한 立約이라도 성취시키려고 한데서 同遠征의 任務는 실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1871년 그란트大統領이 파견한 朝鮮遠征軍의 公式名稱은 「海軍遠征」(Naval Expedition)이나 또는 懲罰遠征(Punitive Expedition)이라고 부르는 바와 같이 19세기 美國의 對外政策遂行에 있어서 행사해오든 傳統的 砲艦外交가 朝鮮遠征 任務遂行에 있어서도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筆者는 美國의 對朝鮮砲艦外交와 그리고 그로 인한 第1次 朝·美戰爭이라는 相關關係의 重要性에 着目하고 同問題의 分析과 解釋에 접근하고자 한다. 5월 16일 日本 長崎를 出發한 아시아艦隊가 5월 19일 朝鮮西海岸에 도달해서 對朝鮮砲艦外交政策에 입각한 朝·美交渉과 그리고 平和的 交渉 失敗, 6월 1일 江華海峽으로의 探測遠征艦隊의 파견으로, 드디어 第1次 朝·美戰爭의 勃發로 말미암아 朝·美關係는 더욱 惡化, 6월 10일 第2次 朝·美戰爭을 誘發했던 것이다. 결국 美國의 砲艦外交는 1854년 日本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鎖國朝鮮에서는 실패했던 것이다. 筆者는 「美國의 朝鮮遠征決行 經緯(1870—71)」는 다른 學術誌에 발표하였고(檀大論文集 12輯), 本稿에서는 第1次 朝·美戰爭까지의 朝·美交渉을 研究對象으로 다루었으며, 「第2次 朝·美戰爭」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른 學術誌에 발표할 예정이다.

II. 아시아 艦隊의 朝鮮遠征

美國이 對아시아膨脹政策의 一環으로 朝鮮에 懲罰遠征軍(Punitive Expedition)을 파견하게 된 것은 1871년 5월이었다. 美國은 砲艦外交(Gunboat Diplomacy)를 強行, 朝鮮을 開港시킴으로써 朝鮮과 通商關係를 수립하고자 企圖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結成된 美國의 朝鮮遠征軍의 構成人員을 보면, 同任務의 最高책임자인 朝鮮派遣全權公使(Minister Plenipotentiary) 로우(Frederick F. Low),⁽¹⁾ 公使館 代理書記官 드루(E. B. Drew), 公使館書記官補 코울즈(John D. Cowles) 通譯官, 그리고 中國人通譯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우公使의 對朝鮮交渉에는 막강한 아시아艦隊(U.S. Asiatic Fleet) 司令官 로저스(John Rodgers) 提督이 수행하였다.⁽²⁾ 駐北京 美國公使 로우가 이러한 莫重한 朝鮮行 使節團長에 임명된 것은, 그가 일찌기 美國 議會議員,

(1) 로우는 常駐代表가 아니고, 立約을 위하여 임명된(Commissioned to make a treaty) 臨時的인 朝鮮派遣代表(Representative in Korea)이다. Palmer, Spencer, J. ed.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I. The Period of Growing Influence 1887~189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63: pp. 371~372; 또한 籌辦夷務始末(六) (國風出版社 台灣) 卷 80—13, p. 1848에 『美國照會 爲照會事 本大臣奉國家旨 於今年欽派本大臣 充出使朝鮮之公使 偕水師提督坐一幫兵船 同往朝鮮圖議交涉事』에서도 로우는 스스로 朝鮮에 特派된 朝鮮之公使라고 했다.

(2) Cable, E. M.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8(1933): pp. 1, 72.

켈리포니아州知事등을 歷任하는 동안 그란트大統領의 信任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란트大統領은 로우를 1869년 駐清公使에 任命하는 동시에⁽³⁾ 同年 退任하는 로완(Rowan) 아시아艦隊司令官 後任에 로저스提督을 임명하였던 것이다.

로저스提督은 美國海軍士官學校를 졸업한 후 海軍에 入隊, 세미놀戰爭(인디안전쟁)에 參戰하였고, 1852~1855년에는 北太平洋 및 北極海一帶의 探險隊를 지휘하였으며 南北戰爭時에는 裝甲艦을 이끌고 海上戰에서 南軍을 制壓하는 등 빛나는 功勳을 세웠다.⁽⁴⁾ 아시아艦隊司令官 로저스提督이 이끄는 美國遠征軍(American Expedition)은 旗艦 콜로라도(Colorado)號, 코르벳艦 알라스카(Alaska)號와 베니시아(Benicia)號, 그리고 砲艦 팔로스(Palos)號와 모노카시(Monocacy)號 등 5隻 戰艦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로저스艦隊에는 大砲 63門 曲射砲 6門 總兵力은 水兵 및 海兵 1,230名이었다.⁽⁵⁾ 로저스는 로우公使의 命令을 받고 4월 9일 뉴요크를 出航 日本長崎로 向發하였던 것이다. 로저스提督의 命令에 따라 그의 麾下 全艦隊는 미리 指定된 長崎港에 集結하였고, 로우公使는 旗艦 콜로라도號를 搭승하고 5월 8일 上海를 出發, 5월 12일에 長崎港에 入港함으로써 朝鮮遠征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이다.⁽⁶⁾

아시아艦隊는 星條旗(flowery flag=花旗)⁽⁷⁾를 掲揚하고 5월 16일 長崎港을 出航해서 朝鮮遠征의 壯途에 올랐다.⁽⁸⁾ 美國으로서 朝鮮이라는 나라는 『페리(perry)提督이 開港次 日本을 방문하기 前의 日本보다도 훨씬 未知의 수수께끼같은 나라』⁽⁹⁾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朝鮮의 國民 資源 産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者는 한사람도 없었다. 다만 그들이 소문으로 얻어들은 情報은 다음과 같다. 『朝鮮民族은 富裕한 國民이라는 것, 體格은 壯大하고, 힘은 허큘레스(Hercules)와 같은 怪力을 가졌고, 그들의 殘忍性은 호랑이와 같으며, 그들의 銃은 最新型이며, 射擊術은 그옛날 윌리엄-텔(William Tell) 만큼 百發百中이고, 勇敢性은 그옛날 테르모필레(Thermopylae : 480 B.C. 스파르타軍隊가 페르시아軍을 격퇴한 그리스의 옛 戰爭터)의 英雄的 戰士와 같다.』⁽¹⁰⁾ 이처럼 朝鮮의 現實情과 거리가 먼, 너무나 誇張된 헛소문이 艦隊

(3) Malon, Dumas. ed. *Dictionary of American Biography*. 22 vo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vol. 11. Low, Frederick Ferdinand : pp. 445~446.

(4) *Dictionary of American Biography*, vol. 16. Rodgers, John : pp. 77~78 ; Cable, "The United-States-Korean Relations," p. 69.

(5) Cabl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에 나오는 사진자료에 근거해서 算出한 것임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871, p. 115 ; Paullin, Charles Oscar. *Diplomatic Negotiations of American Naval Officers, 1778~1883*.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67. p. 288.

(6) *Official Documents*. No. 91. Low to Mr. Fish. On Board of Flagship Colorado, Harbor of Nagasaki, May 13th, 1871. Appended in *USKR* [E. M. Cable's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8(1938) : pp. 1~229] : 134~135.

(7) 1855년 루·부러머즈(Two Brothers)號의 美國 船員 4名이 漂着, 救助되어 清國으로 安全 送還된 이래 美國은 「花旗國」(Flowery Flag Country)이라 불렀다. 拙稿 「初期 韓·美交涉의 展開」(1852~66) 檀國大學校 論文集 10輯 1976. pp. 13~18 參照.

(8) Griffiths, William Elliot.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5. p. 407 ; "Rear Admiral Schley in Korea." *The Korea Review*. vol. I, No. 10(October, 1901) : pp. 440~445.

(9) *Official Documents*. No. 91. Mr. Low to Mr. Fish. Appended in *USKR* : pp. 134~135.

(10) Schley, Winfield Scott. *Forty-Five Years Under the Flag*.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04. p. 82.

丙의 全將兵들 사이에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美軍은 크게 흥분하였고, 따라서 아시아艦隊가 日本 長崎에 碇泊하고 있는 동안 로저스提督은 有事時 朝鮮에서의 上陸作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軍事訓練을 실시했던 것이다.⁽¹¹⁾ 더군다나 朝鮮遠征에 나선 아시아艦隊의 임무는 1866년 平壤大同江에서 美國商船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號 事件에 대한 真相을 朝鮮側으로부터 解明·謝罪를 公式의으로 받고, 그런 후에 朝鮮과 通商條約을 締結하기 위하여 朝鮮行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要求條件이 貫徹되지 않을 경우에는 朝鮮과의 전쟁을 작오하고 있었다. 아시아艦隊의 將兵들이 소지한 무기는 南北戰爭 당시에 使用했던 最新型武器였다. 『사실상 우리 젊은 將兵대부분은 小戰爭(a brush)을 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우리 將兵중에는 戰爭經驗이 없는 자가 大多數였기 때문에 한번쯤 전쟁의 맛을 보기를 苦待하고 있었다.』⁽¹²⁾라고 한 將校는 그당시의 將兵의 心情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長崎를 出航한 아시아 艦隊는 先頭에 콜로라도號 右舷에는 알라스카號와 모노카시號 左舷에는 베네시야號와 팔로스號를 배치, 이른바 기러기隊形(quarter line)을 이루고 朝鮮으로 航進해 서 드디어 3일 후 5월 19일 忠清道 海美縣附近의 海洋에서 測量하고⁽¹³⁾ 南陽灣 楓島(豐島) 近海에 도달했다. 南陽灣에 偉容을 드러낸 아시아艦隊를 처음으로 目擊한 水原留守 申錫禧는 『今初三日 酉時頃에 異樣船 5隻이 楓島後洋 北쪽 南陽界에 碇泊하였다.』⁽¹⁴⁾라고 報告하였다.

美國艦隊는 北上해서 5월 23일에는 牙山灣에 있는 立波島(Eugenie Island)에 도착하였다. 아시아艦隊의 로저스提督이 소유하고 있는 地圖는 1866년 프랑스 로즈艦隊가 製圖한 航海測量圖(Nautical Surveys)였다. 그런데 이 地圖는 完璧한 海圖가 아니었고, 不正確한 點이 많았다. 이 프랑스海圖는 단순한 航海調査에 의한 地形調査圖(reconnaissances)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수시로 朝鮮 西海岸을 방문한 프랑스船員이 그때 그때 製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本格的으로 探測艦隊에 의해 製圖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海上의 危險한 障礙物(shoals), 위험한 暗礁 海流, 潮水의 干滿, 島嶼의 位置등이 精確하게 記入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朝鮮의 島嶼 岫(岬) 港灣 江河의 名稱은 모두 佛語名稱으로 記入되어 있었다.⁽¹⁵⁾ 그러므로 로우는 艦隊가 江華海峽으로 安全하게 航進하고, 또 作戰上 보다 유리한 碇泊地를 物색하기 위하여 海路探測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알라스카號의 블레이크(Blake)艦長에게 探測活動을 지시하는 동시에 朝鮮當局과의 通信에 對備, 公使館書記官署理 코울즈(John P. Cowles)를 通譯으로 수행케 했다. 로우는 芍藥島海上 旗艦 콜로라도號에서 5월 31일자 피쉬(Fish)국무장관에 보낸 書翰에서, 『우

(11) 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p. 73.

(12) "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A Naval Officer's Story." vol. 8 (2nd Series) 1885 : p. 126.

(13) 高宗時代史 卷 1. 國史編纂委員會 p. 555. 高宗 8年 4月 6日條.

(14) 高宗純宗實錄 上(國史編纂委員會 p. 360)

高宗 8年 辛未 4月 初 6日條.

水原留守申錫禧 以今初三日酉時量 異樣船五隻 碇留於楓島後洋北南陽界矣 各別瞭望陸續報啓 又以初五日申時量 異樣船四隻 來立於南洋李島內 本島與楓島 相距絕遠 瞭望各異 故別定伶仃將校 分送兩處 詳細探察 麟次詳報啓.

(15) 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pp. 74~75.

리 艦隊가 立波島에 도착한 후 우리는 汽艇 4隻을 거느린 팔로스號를 海路探測을 위하여 파견했다. 이들 探測隊는 아무런 抵抗을 받지 않았고, 이 地方住民들로부터의 交信企圖도 없었다. 本人은 팔로스號의 艦長 블레이크를 探測艦隊를 指揮하게 하였고, 公使館書記官署理 코울즈를 通譯으로 수행하도록 했다.』⁽¹⁶⁾라고 보고했다. 로우는 5월 23일자 블레이크에 보낸 訓令에서 다음과 같이 指示하였다.

귀하가 북쪽으로의 豫備探查航行기간 중 貴下의 航行案内를 위하여 마련한 편지를 同封한다. 貴下가 江華島에 까지 航進하지 않는 限, 貴下가 旗艦에까지 돌아오기 전에 本官은 朝鮮國王에게 親書를 보내지 않겠다. 本人은 여기에 그대로 滯留할 것이며, 만약 朝鮮官吏가 우리 艦隊의 朝鮮訪問 目的을 알고자 한다면, 貴下는 本書翰의 趣旨에 따라 그들과 對話를 나눌 것이다. 貴下는 그들에게 本官이 旗艦에 있으며, 本官이 朝鮮政府(國王)에 보낼 公翰을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¹⁷⁾

이와같이 로우公使는 江華島에 이르는 海路를 探測하는 동시에 朝鮮當局과 交涉의 실마리를 잡으려 企圖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울즈通譯官의 報告에 의하면 그는 블레이크艦長이 이끄는 探測隊(a surveying expedition)를 따라 5월 24일 아침 艦隊출발, 重武裝한 팔로스號, 그리고 汽艇 4隻을 거느리고 26일 芍藥島에 이르러 유리한 碇泊地探查活動을 벌리게 되었다. 芍藥島 근처의 住民들은 探測船을 향해 고함울 지르고 활을 쏘았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舊式火繩銃을 쏘았으나 雙方間에 별다른 死傷者는 생기지 아니했다. 朝鮮住民 大多數는 武裝을 하지 아니했고, 探測艦隊가 접근하자 그들은 언덕쪽으로 逃走하고 달았다. 그런데 芍藥島近海를 그려놓은 프랑스 海圖는 바다로 向한 砲臺의 配置現況을 除外하고는 비교적 정확하였다. 探測艦隊가 芍藥島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곳에 要塞地가 있는 줄 몰랐다. 芍藥島와 月尾島 그리고 本土와 西쪽 永宗島간에는 幅 1마일半정도의 좁은 海路가 있고, 永宗島 東端에는 日本의 城壁같은 것이 둘러 있는 村落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부터 1마일半 되는 곳에 海岸都市(濟物浦)가 있었다. 그 都市에는 높이 15피트나 되는 城壁이 있었다. 5월 27일 아침 城壁周邊에 약 200명으로 推算되는 朝鮮軍民이 둘러와서 美國探測活動을 주시·경계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探測隊는 芍藥島近海를 3일간 探查하며 周圍사정을 探索하였다. 探測隊는 北上해서 江華島 南端에 까지 접근해서 動靜을 살폈다. 江華島沿岸에 구축된 城壁의 길이는 8마일이나 되어 보이며 모두가 그 構造가 芍藥島와 濟物浦의 城壁과 대

(16) *Official Documents*. No. 32. Mr. Low to Mr. Fish. On Board Flagship Colorado. Off Isle Boisé, Corea, May 31st, 1871. Appended in *USKR*: pp. 135~137.

(17)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No. 3. Frederick F. Low to H.C. Blake. On Board Flagship Colorado. May 23, 1871. Appended in *USKR*: p. 139.

同小異하였다. 섬住民들이 美國探測船의 活動狀을 경계하면서 다소 흥분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不意의 기습행위에 대비하였다. 探查活動途中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非常事態에 대처하면서 移動하였다. 코울즈는 이곳 江華島南端의 마을住民들의 動靜이 1853~4년 페리提督이 日本을 방문했을 때와 흡사하다고 述懷했다. 雙方간에는 武器를 휴대하고 相對했지만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블레이크 探測隊는 이들 朝鮮人이 『누구든지 上陸하면 모조리 쏘아버리는 政策路線』(a settled line of policy of shoot whoever lands)을 취할 줄 예상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술령대는 동작은 일시적인 흥분이었고, 이내 平定狀態를 보여 다행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探測艦隊는 朝鮮 땅에 上陸하면 衝突하게 되므로 上陸하지 말라는 上部命令을 따랐기 때문에 충돌을 예방하였고, 平和의인 探查活動을 벌였기 때문에 朝鮮人의 흥분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朝鮮住民의 生活狀態를 코울즈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朝鮮은 北中國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다. 村落의 全體 家屋中 극소수만이 기와집이고, 거개가 초가집이었다. 中國의 官衙에 비하면 朝鮮의 官廳은 조금도 훌륭하지 못하였다.』⁽¹⁸⁾라고 지적했듯이 探測隊가 보기에는 貧困의 나라라고 여겨졌다. 이로써 長崎를 出航하기전 艦隊內에 머물렀던 「朝鮮에 대한 誇張된 이야기」가 헛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

上述한 코울즈의 報告書에서 알 수 있듯이 블레이크探測隊는 24일부터 27일까지 連 4일간 芍藥島近海와 江華島南端에 이르는 海路探查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芍藥島近海를 朝鮮과 條約締結을 위한 協商의 碇泊地로 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5월 28일에는 블레이크探測隊는 探測任務를 끝내고 旗艦 콜로라도號로 귀환해서 로우公使에게 芍藥島近海가 아시아 艦隊로서는 朝鮮當局과 協商을 하기에 最適碇泊地라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美國艦隊는 5월 29일 오전 測深을 한다는 信號彈을 發射한 후 芍藥島로 北上航進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후 6시경 드디어 芍藥島近海에 도달·정박하였던 것이다.⁽¹⁹⁾

芍藥島 近海에 碇泊한 후 美艦隊의 將兵 약간명은 小形 汽艇을 타고 섬에 접근하면서 平和의 意圖(peaceful intention)를 보인 후 上陸했어도 雙方간에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朝鮮人은 처음으로 美國의 星條旗를 目擊하고 신기했다. 美國將兵은 섬住民에게 袴衣 단추, 靑衣, 유리병등을 선물로 주었는데, 朝鮮人은 그중 유리병을 값지게 여기고 있었다. 로우와 로저스는 여기서 페리의 日本開港方式과 똑같이 우선 朝鮮과 外交的接觸(diplomatic contact)을 가진 후 그들에게 美國의 要求條件을 적은 親書를 전달한 후 朝鮮으로부터 일단 철수했다가, 이같은 美國의 要求條件에 대한 應答을 받기 위하여 다시 朝鮮을 再訪問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페리提督은 이같은 外交的 接近方式을 써서 日本開港을 성취하였으므로, 로우는 朝鮮과의 外交的 交渉에도 이같은 手法이

(18)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No. 4. John P. Cowles Jr., to F. F. Low. U.S. Flagship Colorado, Roze Roads, Corea. May 29th, 1871. Appended in *USKR*: pp. 139~141.

(19) Schley, Winfield Scott, Rear Admiral U.S.N. "Partial Report of the Engagement of June 10~11th, 1871." Appended in *USKR*: pp. 197~198.

성공할 것으로 樂觀하였다. 美國艦隊는 5월 30일 아침 芍藥島와 蔚島 사이에 碇泊하였다. 톨톤(Captain McLane Tilton, U.S M.C.) 海兵隊大尉는 아나폴리스에 있는 그의 아내 나니(Nannie)에게 朝鮮의 첫 印象을 다음과 같이 적어 보냈다.

이 나라는 아름다운 언덕과 계곡으로 가득차 있고(山岳國), 각종 곡식을 재배하고 있고. 모두가 아름답고 푸르르며, 조그만 초가지붕을 한 村落이 산길 깊숙히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위에 소나무와 기타 常綠樹가 둘러싸고 있고.⁽²⁰⁾

라고 朝鮮의 自然風光이 아름답다고 찬탄하고 있었다.

Ⅲ. 로우公使의 對淸交涉

로우公使는 北京을 출발해서 朝鮮遠征에 나설 때 처음부터 朝鮮과의 交渉은 「可望없는 事件」(a hopeless case)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이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확한 예언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對朝鮮遠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는데 있어서 그의 權能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²¹⁾ 로우公使는 피쉬국무장관으로부터 朝鮮으로 향발하기 전에 朝·淸간의 傳統的인 國家關係(朝貢關係)로 보아 사전에 淸朝의 好意(good will)와 斡旋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訓令을 받은지라, 淸朝當局에 協助를 구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美國遠征軍出發과 訪問目的을 朝鮮政府에 事前에 傳達하는 것이었다. 로우는 피쉬국무장관의 訓令대로 淸朝의 協助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1871년 2월 11일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總理衙門大臣 恭親王 奕訢에게 朝鮮과 外交的協商의 길을 트기 위하여 海軍遠征軍(Naval Expedition)이 朝鮮으로 向發한다는 사실을 통고하는 동시에 朝鮮朝貢使가 北京에 도착하면 代身 전달하여 달라면서 로우公使는 自身の 公翰을 手交하였다. 이처럼 朝鮮政府에 보낼 로우公使의 親書傳達에 總理衙門의 周旋을 요청하였다.⁽²²⁾ 그러나 總理衙門은 『外藩(subject-states : wai-fan 朝鮮을 가리킴)과의 去來關係는 一定한 定例가 있기 때문에 總理衙門으로서는 이에 干與할 수 없으며, 朝鮮에 관한 事務는 禮部의 所管事』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를 거절하고 말았다.⁽²³⁾ 그러나 로우公使는 끈덕지게

(20) Castel, Albert and Nahm, Andrew C.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American Heritage*, XIX(April, 1968) : p. 22.

(21) "Rear Admiral Schley in Korea." *The Korea Review*, Vol. I, No. 10(October, 1901) : pp. 440~445.

(22) 籌辦夷務始末(六)(國風出版社, 臺北), 卷 80 : 12, p.1847. 同治 10年 辛未正月壬子. 總理各國事務恭親王等奏. 竊上年十二月二十二日 先據美國住京使臣鑾斐迪(로우)來臣衙門 面遞軍開節略一紙 並請俟朝鮮貢使到京 代爲轉交……

(23) 同上條.

……臣等當告以中國與外藩交接 向有定例 非本衙門 不能干預 朝鮮事務禮部 總理衙門不便與之往來 難以代交 並力阻其 前往……

2월 15일 재차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3월 7일 親書傳達을 懇請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완강히 거절함에 로우는 하는수 없이 親書를 가지고 돌아왔다.⁽²⁴⁾ 清朝의 이같은 거부는 美國에 대한 非協助態度이요 결코 外藩에 대한 不干涉政策과는 관계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²⁵⁾ 자기가 朝鮮派遣特使에 임명되었으며, 任務遂行次 美國戰艦을 인솔하고 朝鮮行을 決行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親書傳達에 協助와 諒解를 懇請했다. 이에 總理衙門은 하는수 없이 親書傳達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3월 12일자 總理衙門覺書에서 다음과 같이 당초의 태도 변경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朝鮮은 비록 中國에 臣服하고 있지만 모든 政教禁令은 自主의으로 행하여 왔기에 中國은 이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美國의 朝鮮으로의 戰艦派遣 計劃을 阻止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美國은 중내 不聽하였다. 이제 美國의 단호한 決意를 고려해 보면 이 편지전달 여부에 문제의 관건이 달려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 편지를 전달하지 아니하면, 朝鮮은 저들(美國艦隊)의 到來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朝鮮은 사태에 對處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같은 처사는(親書傳達拒否) 朝·美兩國으로부터 非難을 들을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로우의 親書를 朝鮮에 전달하기로 하였다.⁽²⁶⁾

이와같이 總理衙門은 로우의 親書傳達拒否로 나중에 어떤 責任追窮이 두려워 드디어 3월 28일 朝鮮國王에게 보내는 로우의 親書를 전달해 주라고 禮部에 지시하였던 것이다. 禮部는 이 편지를 朝鮮으로 急送하기 위하여 3월 22일에 兵部로 移管하면서, 朝鮮은 淸의 屬國이나 사실상 獨立國이므로 朝鮮內政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²⁷⁾

로우公使가 朝鮮國王에게 보낸 親書, 즉 「美國致朝鮮國信函」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로우는 朝鮮海域에서의 美國遭難船員과 商人들의 救濟와 保護問題 등 諸事項을 朝鮮當局과 商辦하기 위하여 北京駐在 美國公使職을 임시로 떠나서 이같은 막중한 特殊任務, 즉 朝鮮派遣全權公使의 자격을 띠고 朝鮮으로 向發했다는 것, 종전의 경우를 보면 朝鮮海域에서

(24) 同上條

……嗣於二十六日 該使臣復來臣衙門 申請代爲轉交 臣等仍前再三拒阻 該使臣雖將原單攜回 然臨行仍以前說堅請……

(25) 朴日權, 「近代韓美外交史」 博友社 1968 : p. 111.

(26) 籌辦夷務始末(六) 卷 80 : 13, p. 1848. 同治 10年 辛未 正月壬子.

總理各國事務恭親王等奏.

……均臣等以朝鮮雖係臣服中國 其本處一切政教禁令 概由該國自行專主 中國向不與聞 照覆英美兩各在案 令美國欲與朝鮮議事 亦當由該國自行主持 未便代爲過問 惟美國既以兵船前往 先後竭力阻止始終不聽 窺其立意之堅 是兵船之往與不往 原不係此信之投與不投 若不將信函代爲轉達 恐朝鮮未知來由 轉誤事機 殊非關切屬國之道 所有美國原函 自應仍與代寄爲宜 如蒙

(27) *Foreign Relations, 1871*, pp. 111~112; Choe, Ching Young, *The Rule of the Taewongun 1864~1873. Restoration in Yi Korea*.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pp. 123~124.

美國의 어떤 배의 船員은 救濟되었는데(1866년 서프라스號의 救濟를 가리킴) 어떤 배의 船員은 비참하게 殺害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1866년 平壤大同江에서의 제너럴·저먼號 事件)는 것, 美國戰艦이 朝鮮海域으로 進入하더라도 朝鮮人은 조금도 놀라지 말 것이며, 美國艦隊는 平和의意圖를 가지고 任務遂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美國艦隊는 지금으로부터 2, 3個月後에 朝鮮에 도착하면 朝鮮國王은 特使(大官)를 파견해서 商辦에 응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것이다.⁽²⁸⁾

이 편지에는 朝·美間에 貿易 혹은 通商條約締結에 관한 말은 一言半句도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로우親書가 朝鮮政府에 전달되기는 4월 10일이었다. 이 편지를 접수한 朝鮮政府는 로우에게 직접 回信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왜냐하면 로우의 親書에 回信하게 되면 그것은 곧 往復(intercourse) 關係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朝鮮의 傳統的 鎖國政策에 違背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朝鮮政府는 로우의 親書接受를 확인하면서 淸의 禮部로 보내는 咨文을 통하여 美國遠征軍을 擊退할 決意를 表明하였다. 承文院에서 작성한 回咨文에는 朝鮮의 鎖國政策의 基本精神을 밝히고 있다.⁽²⁹⁾ 그러나 로우는 朝鮮政府가 禮部로 보낸 回咨文을 받아보지 못하고 上海를 떠나 朝鮮遠征의 壯途에 올랐기 때문에 朝鮮政府의 公式의反應을 모르고 朝鮮海域에 왔던 것이다.

3월 7일자 朝鮮國王에게 보내는 로우公使의 親書를 4월 10일에 접수한 朝鮮政府는 이에 대한 回信을 淸國 禮部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承文院에서 回咨文을 작성해서 보냈던 것이다. 北京禮部로 보낸 朝鮮國 回咨文은 다음과 같다.

……公使의 편지에는 1866년 美國商船 2隻(서프라이스號와 제너럴·서먼號)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중 1隻은 難破되었으나 船員 모두가 救濟되었고, 다른 한척의 商船船員은 殺害되고 船體마저 燒破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美國政府는 이같은 사실을 보아서 알수 있듯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다만 사건진달을 探問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더군다나 美國은 앞으로 우리나라 海域에서 美國商船의 遭難事故가 발생하면 이를 救濟하는 協定을 체결하고, 難破船에 대한 友好的인 待遇를 保障받으려 하고 있다.

(28) 籌辦夷務始末(六) 卷 80 : 14~15. pp.1849~1849. 同治 10年 辛未 正月壬子. 美國致朝鮮國信函.

代本國君主問朝鮮君主好 歷來本國商船往來日本國中國 美國之海洋面 必由貴國經過 或遇大霧 船隻危險 迷路於各洲島中 難尋路徑 須人引水 或船漏須補 沈溺須人援救 或採買食物 均須上岸各事宜 以人道相待 則美國與貴國 非漠不相關之勢 本國常例 商民各水手往各國者 備悉其受艱苦而不忍坐視 思設法保護 故派本大臣暫離住華之任 前往貴國商議此事 前二十年 日本國搜獲美國水手人 嗣於癸丑年 美國派水師提督充公使 前往日本國立一和約 至今兩國毫無釁端 可知辦法甚善 至於貴國查丙寅年間 有美國商船二隻 一在境內遭風被救 人生船沒 一在境內被害 人死貨無 本國未知貴國緣美國旗號否 未曉一救一害 何以如此相懸 慈欲訊根由 自與日本國事同一律 故本大臣及水師提督 坐兵船一幫 以肅體統 非耀威武 前往貴國商交涉事 嗣後如有美船在境內遭一切苦難 如何設法相救 亦宜早圖 庶免美商被害 致啓釁端 此豫防後患 本國體恤商民水手 甚不欲別國任意欺侮凌虐 將來兵船入境 貴國真生藥虐 致駭平民 本國以和睦來 望以和睦相待 若多方拒絕 實自召不睦 又誰尤焉 至於本國與中國夙爲良友 先託代達是函 以述國旨大略 約三兩箇月內 本大臣等入界 希望貴國大官 在界商辦一切 事此通知朝鮮國君主 想必以此事爲甚善也.

(29) Choe, *op. cit.*, p. 125.

弊邦은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外國의 異樣船이 우리 海域에서 遭難・漂着하면, 언제든지 飮食物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서, 그들이 다시 航行을 續行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만약 그 배가 破損되어 航行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船員을 上都인 北京으로 護送함으로써 本國으로 送還했던 것이다. 모두가 관련된 船員의 所望을 존중하였고, 이같은 일에 아무런 차질이 없었다. 朝鮮은 淸國 皇帝의 뜻을 받들어 이같은 遭難船에 대한 人間의 待遇와 處事는 이미 오래전에 수립된 確固不動한 規則으로 내려오고 있다. 특히 美國 市民으로서 우리 海域에서 遭難되었다가 救助된 일은 세번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淸國으로 護送하였던 것이다. 즉 咸豐 5년(1855년 루·부러더즈號), 同治 4년(1865년 8월 17일 延日縣 漂到人 3名 救濟), 同治 5년(1866년 서프라이스號)등. 1866년 가을에 朝鮮에서 燒破 殺害된 사건(제너럴·셔먼號)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陳述을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한 상세한 보고는 이미 同治 5년 8월 22일(1866년 9월 30일)에 禮部로 보낸 咨文에서 보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反復할 필요가 없다. 同治 7년 3월 25일(1868)에 또다시 禮部咨文에 대한 回咨文에서 명백히 밝혔고, 또 美 와추세트(Wachusett)號 船長(Shufeldt)에 대한 黃海監司 朴承輝의 回信寫本을 同封한다. 同治 7년 3월에 페비거(Febiger) 선장이 再來해서 同事件(제너럴·셔먼號)을 探問하면서, 平安黃海監司에게 公文書를 전달했다. 이들 감사는 1866년 가을에 한 異樣船이 侵入해서 지방백성을 傷害하고 한 軍官(李玄益)을 抑留한 결과, 백성의 격분을 사서 마침내 처참한 破滅을 당했다고 그 당시의 사건전달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억측과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같이 설명하였다. 그러자 페비거船長은 回答을 받고 즉시 朝鮮을 떠나 淸國으로 돌아갔다. 以來 그나라 국민(美國)은 이 사건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사건의 잘잘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제 이 이상 본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探問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서 美國公使는 또다시 그의 公翰에서 한 商船의 救濟와 한 商船의 燒破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을 반복한단 말인가.

그는 말하기를 美國政府는 船員과 그의 국민에 대한 우려를 한 나머지 만약 他國이 이들에 대한 虐待 또는 破壞行爲를 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美國은 그의 市民이 虐待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百姓이 虐待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易之思之한다면 이에 대한 異見이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平壤에서의 「異樣船은 스스로의 挑發行爲로 인한 破滅自招」(the self-provoked destruction of the vessel)임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우리는 人間의 正義感과 理性에 호소하는 바이다. 만약 美國船이 우리 軍民에 대해 放恣한 行動을 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우리 軍民은 먼저 그들을 학대할 생각을 했겠는가? …… 만약 他國이 우리와 善隣友好關係(a relationship of good will with us) 수립을

원한다면 우리는 淸國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할 用意가 있다. 우리는 친절한 厚待의 慣例(柔遠之義)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交涉문제에 관하여 協議調停한다고 표현하였는데, 본인으로서서는 무엇을 「協議하고 調停」(consult and arrange)할 것을 원하는지, 또는 우리에게 어떤 交涉을 원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 皇帝의 諸侯는 外交關係를 수립할 수 없다. 遭難당한 異樣船의 船員은 同情感을 가지고 이를 친절하게 送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傳來의 定則(a constant rule)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이것은 淸國의 慣例를 본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協議 調停을 기다릴 것 없이 美國公使는 이에 대해 조금도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公使는 이같은 好意를 알고 있으면서, 방자한 폭력을 감행하였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경계할 것이며, 天帝나라의 防壁으로(藩屏)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美國政府는 자신의 국민을 통제해야 하며, 他國에 不適切한 干涉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他國과 交涉與否를 協議 云云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諸外國은 우리나라의 特性和 產業에 대해서 전연 未知狀態이다. 우리는 外國으로부터 계속 通商交涉을 하자고 시달림을 받아 왔으나, 그것은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 外國과의 通商關係가 우리에게는 利得이 되지 못한다고 同治 5年 禮部에 보낸 咨文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즉 弊邦은 바다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一個 小從屬國(a small dependency)이며 백성은 가난하고, 商品은 稀少하고, 貴金屬과 寶石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穀物과 纖維類 生産도 충분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우리나라 生産物은 國內需要에도 不足하므로, 만약 우리의 生産物을 海外로의 輸出을 허용한다면 그 결과 우리나라는 貧困하게 되고 弊邦은 극도로 危險에 직면, 經濟的 破滅로부터의 救濟가 어렵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백성의 習性은 스스로 삼가고 儉素하며 술씨는 粗野하고 빈약하므로, 우리가 西洋諸國과 通商을 할만한 商品이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對外通商關係를 수립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外國商人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上擧한 내용을 보더라도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通商交涉(Commercial intercourse)을 꾸준히 切望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 사정에 대한 無知의 所致가 아닌가 생각된다.

美國公使의 편지를 보아하니 公式의으로 언급하지는 아니했지만, 바로 通商交涉을 주장한 것임에 틀림없다. 遭難船員의 救濟와 本國送還 문제는 이미 現存 法律上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여 「固定된 協定」(a fixed arrangement)으로 明文化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且置하면 이 이상 美國과 協議・解決할 문제는 없겠고, 이 문제로 서로 왕래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禮部가 이에 관련된 여러 사실을 皇帝에게 奏上하고, 皇帝는 美國公使에게 의심을 풀어주고 熱意를 갖지 못하도록 당부하는 訓令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우리 兩側은 紛

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³⁰⁾

결국 朝鮮咨文의 要旨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첫째 제너럴·서면號사건은 美國商船의 挑發行爲로 인해 破滅을 自招했다는 것, 둘째 遭難船員救護問題는 이미 國籍如何를 不問하고 朝鮮海域에서 遭難·漂着하는 자를 救濟하는 일은 傳統의慣例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遭難船員 保護를 위한 協定締結은 무의미하다는 것, 셋째로 朝鮮은 從屬國이기 때문에 他國과 外交關係를 수립할 수 없다는 것, 넷째로 로우의 親書에는 交易問題를 言及하지 아니했지만, 朝鮮은 生産業이 빈약하므로 國內需要도 충족할수 없는 실정이고, 만약 他國으로 輸出하면 經濟的 破綻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他國과 通商關係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우公使는 朝鮮政府로부터 回咨文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이미 朝鮮遠征준비가 完了되어서 워싱턴으로부터 朝鮮派遣特使의 全權(full power)을 委任받고 드디어 5월 8일 上海를 출발해서 長崎를 경유 朝鮮으로 向發했던 것이다.

IV. 朝·美 交 涉

美國探測艦隊가 5월 27일(4월 8일)에 勿淄島 後洋을 지나 富平境으로 들어 왔을때 南陽府使 申轍求는 花梁僉使와 같이 問情하러 美船에 접근하려 시도하였지만 强風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濟扶島로 退泊하였다. 대개 朝鮮短艇은 蒸汽動力船이 아니기 때문에 海上氣候條件이 조금이라도 사나우면 자유롭게 運航할수 없었다. 이에 비해 美國船은 근대적 蒸汽動力船이므로 自由自在로 海岸을 누비고 다녔다. 매마침 美國 從船 3隻(探測船)이 浮來하므로 손을 저어 불러본즉 그들은 접근해 오므로 「問情次 來此」라고 書示했더니 그들중 3, 4명이 跳船下陸하였다. 言語不通으로 書問하기를, 何國人이며 何月何日에 우리나라에 왔으며 洋船은 모두 몇隻인가 등을 물

(30)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No. 5. King of Corea to Board of Rites, Peking. Appended in *USKR*: pp. 158-162; 高宗純宗實錄 上 (pp. 355-356)

高宗 8年 辛未 2月 21日條. 美國書函送事 答送中國禮部咨文略.

查照美國使臣所投封函 專爲丙寅年間該國商船二隻 來到敝邦境內 一則遭風被救一則人貨無一救一害之如此相懸 其曉其故 欲得根由 仍願他日該國商船 如或在境遭難 設法相救 和睦相待等語也 敝邦三面濱海 凡遇運難來泊之別國客船 或助糧給需 俟風歸去 或船破不完 早路護送 各隨其願 並無阻礙 若據美國難民之拯救護送者 則曾有咸豐五年同治四年及五年先後三次護送 事非久遠 該國之人 亦應見聞攷及也 遠人之經涉風濤 出沒艱險 在所難恤 安有殘害之理哉 彼所云在境被害入貨無者 必指丙寅秋間平壤河事也 伊時情形 雖悉具陳於同治五年八月二十二日移咨 今無庸更述 今此美使函稱一救一害其曉其故者 何也 其稱體恤 商民水手 甚不欲 別國任意欺侮凌虐者 此實四海萬國之所同然也 該國之不欲受人凌虐 本國之不欲受人凌虐 易地而思 實無異同 則於是乎平壤河船之自取滅沒 不待辨說 而其故可曉矣 美國商船 如不凌虐我人 朝鮮官民 豈欲先加於人說 今來傳函 既望和睦相待矣 絕海殊域 如欲好意相關 則美應以送 非無其道 而其云商辦交涉 未知商辦者何事 交涉者何件乎 其有運難客船 慰恤護送 不待商辦而保無疑慮 其或不懷好意 來肆凌虐 則擇乘勦除 美國官弁 只可檢制其民 勿令非理相干而已 交涉與否 更何足論乎 從前別國 不知朝鮮之風土物產 每以通商之說 來蠲屢矣 而本國之決不可行 客商之亦無所利 曾有同治五年咨陳者 敝邦之海隅偏小 天下之共知也 民貧貨微 金銀珠玉 元非土產 米粟布帛 未見其裕 一國之產 不足以支一國之用 若復流通海外 耗竭域內 則靡爾疆土 必將岌岌而難保矣 況國俗儉樸 工手劣功 未有一件貨物 堪與別國交易 本國之決不可行如此 客商之亦無所利如彼而每有通商之意 蓋由別國違人之未諸未詳而然爾 今此美使封函 雖未嘗發端而既要官人商辦交涉 則無或爲此等事歟 運難客船之照例救護 毋待更煩辯論 餘外事件之別無商辦 不須使費來往 伏望將此諸般情實 開諭該國使臣 以爲破惑釋慮 各安無事 不勝幸甚.

로 써서 問情하였더니 그들도 英字(洋書字)로 표시했으나, 도무지 그 글자를 이해할수 없어서 意思疏通이 안되었다. 다만 그들은 손가락으로 大船 所在處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同行船團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들은 朝鮮問情官에게 鉛盒 1個, 小刀 1柄, 乾餅 1囊을 선물로 내주었으나, 모두 이를 거절하였더니, 餅囊(건빵류 과자인듯)만은 돌려 받지 않고 大船(팔로스號) 쪽으로 가버렸다.⁽³¹⁾ 이로써 美艦隊가 朝鮮海域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朝·美간에 접촉이 있었지만 言語不通으로 말미암아 원만한 交涉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5월 28일(4월 8일)에 南陽府使 申徹求是 花梁僉使와 더불어 小船을 타고 洋船으로 問情次 再次 出航하였다. 그러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强風이 거세게 불어 사나운 風浪으로 부둣이 運輸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때 美國 探測船 3隻이 風浪을 무릅쓰고 來泊하므로, 접근해 보니 美國人 3인이 어제처럼 跳船下陸하였다. 어제와 같이 筆談하려 하자 그들은 文字解得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一封書를 건네 주었다. 그들중 한 사람은 興販(交易)하려 온 것인지 殺害 하러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艦隊는 모두 5隻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 一封書(로우의 편지)에는 美國欽差大人(로우 全權公使)은 朝鮮國大憲(特使)과 商辦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³²⁾

5월 29일 美國艦隊는 출발해서 航進을 계속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視界를 가리고 있어서 陸地를 觀望할수 없었기 때문에 芍藥島 밑 수마일 海上에 정박하지 않을수 없었다. 5월 30일 안개가 걷히자 다시 航行을 계속해서 그날 오후에 芍藥島와 蔚島사이 海上에 정박하였다. 이곳에 정박하자 朝鮮정크船 1隻이 美船과 交信을 희망한다는 信號를 보이면서 접근해 오므로 이들 朝鮮人에게 旗艦에 登船하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편지 한장을 휴대하고 왔었다. 5월 30일 콜로라도旗艦을 최초로 방문한 朝鮮問情官 4명이 휴대하고 온 朝鮮代表 3인의 편지에 『南陽府로 부터 귀하의 公文書를 접수해보니 비로소 귀하가 美國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것을 알게 되었다.

(31) 高宗純宗實錄上 (p. 360)

高宗 8年 辛未 4月初8日條.

永宗防禦使 以今日午時量 異樣船使小船四隻 測水東西 未知其何意 而過臣營終境內勿瀾後洋 留旋於富平境 自臣營相距爲七里啓.

○京畿監司朴永輔 以即接南陽府使申徹求稟報 問情次 今日與花梁僉使同船離發 纔到中流 猝風大起 萬無前進 故不得已退泊於濟扶島 則洋船從船三隻浮來 故揮手招之 船暫留住矣 書示問情次來此之五字 則彼人三四 跳船下陸 書問你們何國人 緣何事來此耶 彼笑而點頭 又問何月何日 來到敝境 而來船幾隻耶云 則彼書示洋書字 皆不識字樣 彼以指畫掌 又舉手指大船所在處 有若同往問答樣 而又出給鉛盒一箇 小刀一柄 乾餅一囊 故並爲還結 則餅囊不受 仍向大船而去……

(32) 高宗純宗實錄上 (p. 361)

高宗 8年 辛未 4月初9日條.

京畿監司朴永輔 以今日巳時潮站 南陽府使與花梁僉使 騎船出海 未及洋船處 猝風依如昨日 不得已退泊矣 彼從船三隻 冒風來泊 故急往則洋人三名跳下 其中一人形容籍貫 眞是我國人 書問你們 以何國人 緣何事來此耶 彼曰不識字 未能筆答 給一封書 仍曰 或有解漢語者乎 答以無乎 則彼曰興販來此 並無殺害之端 又問船是幾隻 彼曰五隻 又問何日還去乎 彼曰日間向北 又曰 猶爲雞卵魚鱗可買乎 答曰無 又欲更問則彼拂袖回棹而去 爾酌之間 暫察三船中所在洋人 爲四十七名 彼輩無難萬行 沿途大爲踴躍 故防守之節 十分另飭 而彼之一封書 應書 上達啓.

洋書云覆函啓 閱昨在棧船接得來字詢 以我輩何圖來此事 何事 官問來歷 可好等語業將此節書 達我欽差大人提督大人 留蒙準給回信 此船系由大亞美理駕合衆國 即大美國 來者因我國欽差大人 與朝鮮國大憲 有商辦事件 大約辦妥尚需時日 本船在此海畫一帶停泊 竣事竣約便回程舟次二位大人均好.

이에 貴下의 任務를 問情하기 위하여 官吏를 파견하는 바이다. 貴下의 船團은 深海가운데 碇泊하고 있어서 우리의 小船으로서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貴下의 大船團으로 자유로이 往來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잠시 仁川府沿岸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같은 발표를 하고 回信을 기다린다.』⁽³³⁾ 이들 朝鮮通事 4인의 말에 의하면 전번 로우公使의 편지를 접수하고 귀하가 美國人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朝鮮國王은 貴下와 商辦할 大官 3名을 임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 이 편지를 휴대하고 온 자는 下級官吏(通事)이며 자기보다 職位가 높은 高位官吏가 내일 商辦하러 美艦에 到來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美國側은 이들에게 朝鮮과 平和的關係維持를 희망한다는 美國의 所望과, 美國이 先制攻擊을 받지 않은 한 여하한 暴力行爲(any act of violence)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³⁴⁾

한편 朝鮮側 高宗實錄에 의하면 旗艦 콜로라도號를 최초로 방문한 朝鮮人의 交涉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4월초 10일 美國의 4隻小船이 一齊히 仁川府海界로 浮到하고 府使가 登岸瞭望한 즉 美船團은 仁川府와 安山兩界의 海路와 深淺을 測水하고 있었다. 한편 美國艦隊 5隻은 이날 酉時에 富平界 虎島前洋에 留碇하였는데 2帆船이 2隻, 3帆船이 3隻이고 배는 4層으로 되어 있고, 每 15間, 高가 4丈餘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義州에서 온 通事 3인이 仁川邑吏 金振聲과 더불어 4인이 問情次 美艦을 방문하였다. 美國側은 그들 朝鮮人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船隻이 貴國으로 入境한 根本의 理由를 묻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미 欽差大人(로우) 提督大人(로저스)에게 上達하였다. 이에 우리는 欽憲筋令覆函을 받들고 왔는데, 此船은 我欽差大人을 駛送해서 貴朝廷과 더불어 商辦하기 위하여 來朝하였는 바 我欽憲은 貴朝廷이 반드시 大憲을 파견해서 會同商酌하리라고 深信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我欽憲은 大憲을 特派할 것을 기다려 衷曲을 計達코자 하며 수일동안 停舟해서 貴朝廷으로부터 日間 玉音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日內에 몇척의 艦艇을 北쪽으로 파견해서 水勢를 試探함으로써 大船의 駛上에 便케 하고자 한다. 瀕海居民이 驚恐하지 말 것이며, 彼此 禮로써 相待할 것이며, 결코 害意가 없으니 事端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란다.』⁽³⁵⁾라는 辭緣을 전했다.

(33)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No. 5. Note of May 30 from Korean Officials. 4th Moon, 12th day, (May 30th, 1871). Appended in *USKR*: p. 142.

(34) Rodgers, John, Rear Admiral U.S.N. "Partial Report on the Military Expedition to Korea." Appended in *USKR*: p. 189.

(35) 高宗純宗實錄上 (p. 361)

高宗 8年 辛未 4月 初 10日條.

京畿監司朴永輔 以即據仁川府使稟報 今日辰時 彼船下去八尾島前洋留碇 四隻小船 一齊浮到仁川府海界 故府使登岸瞭望 則本府安山兩界 測水深淺 彈風海壽 無難往來 極爲巨測云云 又以仁川府使稟報 彼船五隻 今日酉時 仍爲留碇於富平界虎島前洋 船洋段 二帆船二隻 三帆船三隻 而三帆最大船隻 即滿人目擊 內作四層 每十五間高四丈餘 下來灣通事三人 與本邑吏金振聲 問問情後 所答辭緣及受來物名 並以修成冊上使 而物件段 問情官直爲賣納于襄境官 所報成冊 別紙謄出 奏封上送啓.

成冊中辭緣 仁川府呈 貴官長均啓 頃間接到來函內稱欲就敝國船隻入境根由 已上達我欽差大人提督大人矣 慈奉欽憲筋令覆函 準此船係因誤送 我欽差大人前來與貴朝廷 有要事商辦 我欽憲深信貴朝廷必派大憲等會同商酌 俟有特派大憲前來我欽憲 方應計達衷曲 現欲停舟數日 以俟貴朝廷有何玉音日內按令隨帶舟隻 前往上游 試探水勢 以便訪奉 大船駛上 並期諭知瀕海居民 勿得驚恐 彼此以禮相待 決無害意 免生事端此覆物名秩滿人三人則 各給白蠟燭二枚 塗金飾小掛鏡三面 船人則 各給天保通寶 當百錢一葉.

한편 美國將兵은 이들 朝鮮人 4名을 歡待하면서 艦艇內를 두루 구경시켜 주었고, 그들에게 飮食을 대접하고 에일(ale)맥주까지 대접하는 등 융숭한 饗遇를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물까지 주었다.⁽³⁶⁾ 朝鮮人은 美國艦艇에서 처음으로 美國風物을 구경하였고 심지어 융숭한 음식대접까지 받아서 마음이 호뭇하였다. 이어 처음으로 寫眞撮影까지 하였는데, 甲板上에서 한 朝鮮人은 상투바람으로 에일맥주 빈병 10여개를 한아름 안고, 긴 담뱃대와 마사추세츠出身 섬너(Charles Sumner) 上院議員의 사진이 전면톱에 실려있는 보스톤에서 발행하는 삽화신문(illustrated newspaper)인 에브리 세터데이(Every Saturday) 신문 한장을 앞에 걸치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³⁷⁾ 基督教文明의 象徵物과 儒敎文明의 舊習이 한데 혼합된 기이한 珍風景이었다.

드루書記官은 朝鮮問情官 4人을 끝까지 歡待하면서 그들이 휴대하고 온 朝鮮代表 3人의 書翰에 대한 回信에서 로우公使의 朝鮮訪問目的을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 즉 첫째 로우特使는 朝鮮政府와 中대한 商辦을 하기 위하여 美國艦隊를 거느리고 왔으며, 둘째 職位上 美國特使와 對等한 大官을 파견하면 로우公使는 協商에 응해서 朝鮮訪問의 經緯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 로우公使는 旗艦에 탑승한 채 朝鮮政府로부터의 公翰을 접수하기 위하여 수일간 이곳에 체류할 것이다. 넷째 로우公使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美國의 大形艦艇이 首都가까이로 移動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美國의 小形艦艇이 探測作業을 開始할 것이다. 다섯째 美國艦艇에 탑승한 승무원에게 친절한 禮遇를 하는 한 朝鮮百姓을 危害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여섯째 로우公使와 로저스提督은 앞으로 兩側간에 紛爭發生을 未然에 방지 하기 위하여 이러한 로우公使의 訓令內容을 朝鮮百姓에게 충분히 認知시켜 주기 바란다.⁽³⁸⁾

그 다음날인 5월 31일, 드디어 朝鮮代表 3名이 艦隊를 방문하였다. 로우公使는 朝鮮派遣全權公使(Minister Plenipotentiary)의 직책을 띠고 있는 자신의 職位와 對等한 朝鮮大官이 아니면 상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³⁹⁾ 朝鮮代表는 재량이 넓은 것을 쓰고,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王室의 象徵인 조그만 官杖을 짚고 있는 것으로 보아 重要人物로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信任狀을 휴대하고 있지 아니한 職級이 三品내지 五品官의 下級官吏였다. 東洋諸國이 外交交渉에서 쓰는 수법은 朝鮮과 日本이 同一하였다. 로우公使는 朝鮮官吏가 1853~4年 日本開港時 페리提督의 對日交渉時에 日本人이 쓰는 똑같은 計略을 쓰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로우는 페리가 日本下級官吏와 상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朝鮮代表가 下級官吏라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이들과 相談에 응하지 않고, 公使館書記官 드루로 하여금 접대케 했다.⁽⁴⁰⁾

(36) 美國人은 通事3人에게는 白蠟燭(양초) 2枚, 鍍金飾小掛鏡(거울) 3面을, 船人들에게는 天保通寶 當百錢1葉씩을 주었다. (高宗實錄 8年 辛未 4月 初10日條)

(37)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 22;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p. 407~408.

(38)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No. 6. Note of May 30 to Korean Officials. Appended in USKR: p. 142.

(39) Rodgers, John, Rear Admiral U.S.N. "Partial Report on the Military Expedition to Corea." Appended in USKR: p. 190.

(40)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p. 22~23.

드루는 우선 로우全權公使와 對等한 大官派遣을 요구하면서 艦隊의 朝鮮訪問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더니 이들 朝鮮代表는 「反對意思를 밝히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다만 찬성도 반대도 표명하지 않고 美國艦隊의 朝鮮訪問 목적과 의도만을 알려는 태도였다. 그리하여 드루는 그들에게 美國의 朝鮮 「不侵意圖」(non-aggressive disposition)를 다짐하면서, 先制攻擊을 받지 않는 한 武力的手段에 호소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江華海峽 즉 鹽江(Salee River)의 探測意思를 정식으로 통고했다. 美國 探測艦隊가 江華海峽으로 溯上, 探查活動을 하더라도 妨害(molestation)하지말 것이며, 江華沿岸의 朝鮮백성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周知시켜서 平和의 探查活動을 방해하지 말것이며 友好關係維持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朝鮮代表가 美國의 要求條件에 아무런 反對意思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探查活動을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朝鮮官吏는 異議를 暗示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때신 우리에게 대한 「不反對의 태도」(their manner of non-objection)는 우리의 所望과 一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⁴¹⁾라고 로저스는 판단했다. 그들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함대의 甲板을 떠났다. 그러나 사실상 朝鮮代表는 美國艦隊를 問情하러 파견된 使者에 불과하므로 贊反의 可否를 말할 權能도 없었다. 朝鮮이 이들을 파견한 것은 遲延戰術이며 美國人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러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洋夷와의 外交交渉에서 흔히 사용하는 「東洋人의 傳統的인 手法」⁽⁴²⁾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美國代表 드루書記官이 내건 要求條件에 대해서 朝鮮代表는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 反對意思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南北戰爭이래 아시아大陸, 특히 隱遁國 朝鮮에서 최초의 「전쟁 불씨」가 될 줄 몰랐다. 그리피스도 朝鮮代表를 가리켜 『이들은 首都에 있는 원숭이를 위하여 불에 구운 밤을 가능한 많이 끄집어 내려는 앞잡이 역할을 한 傀儡에 불과하다.』⁽⁴³⁾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런 權能도 없는 下級官吏를 파견해서 시간을 끌고서 相對方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放心시키는 術策, 이것이 「아시아政策」(Asiatic policy)의 主武器이다. 적어도 아시아外交의 이같은 策略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美國의 큰 失策이었다. 일찌기 페리提督을 비롯하여 헤리스(Townsend Harris)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對日外交에 성공하였고, 中國에 파견되어 있는 歐美列強의 外交代表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公使의 補佐官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로우의 朝鮮遠征에 암담한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朝·美간의 異見은 곧 言語·文化生活의 異質性에서 基因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朝鮮代表는 美國人이 내놓은 要求條件에 대해서 可否(yes or no) 간의 답변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41) Rodgers, John, Rear Admiral U.S.N. "Partial Report on the Military Expedition to Corea." Appended in USKR: p. 190.

(42)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 23.

(43)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408.

다. 만약 책임있는 言質을 주게되면 左遷 또는 棍杖洗禮를 당하기 때문이다.⁽⁴⁴⁾

드루와 朝鮮代表의 會談을 지켜보았던 어느 美海軍兵士는 江華海峽探查活動에 대한 朝鮮側의 不反對 解釋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回想하고 있다. 『글쎄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提督은 그 전날 旗艦콜로라도號를 방문한 朝鮮官吏에게 探查活動의 目的을 알려 주었는데, 로저스提督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그들은 반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간주하였다. 한 海軍大尉는 이어 『바로 그대로입니다! 나는 東洋人의 노련한 計略과 術策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단순히 “예”(Yes)라고만 말하는 수가 많습니다.』⁽⁴⁵⁾ 朝鮮遠征軍을 指揮하고 있었던 로우公使와 로저스提督은 다같이 朝鮮代表가 反對意思를 분명히 表明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단순히 探測活動을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노련한 블레이크艦長은 이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朝鮮代表의 應答을 探測活動에 대한 承認・贊成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일찌기 그 自身의 경험을 回想시키면서 로우・로저스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즉 블레이크艦長은 1863년 南北戰爭時 알라바마(Alabama)對 하테라스(Hatteras)간의 전투에서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서 처음에는 友情의 表示를 하였으므로 방실했다가 그의 艦艇은 敵의 銃砲의 집중 사격을 받아 격침되고 말았다.⁽⁴⁶⁾ 이러한 경우 美國人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朝鮮人을 잘 대접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우하며 이들의 歡心을 산후에 되돌려 보내서 信任狀을 가진 高位官吏가 도착할때까지 기다리는 忍耐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朝鮮遠征의 실패를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최선의 方策인 것이다. 아시아艦隊內에서 이같은 「忍耐政策」(policy of patience)을 주장한 이가 곧 블레이크(H.S. Blake)艦長이었다.⁽⁴⁷⁾ 로우公使가 블레이크의 忍耐政策을 섰더라면 朝・美戰爭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V. 朝・美 戰 爭 論

1871년 6월 1일 美國探測艦隊가 江華海峽을 侵入, 探查하다가 朝鮮의 先制攻擊으로 勃發한 전투, 그리고 뒤이어 이 사건에 대한 報復膺懲으로 마침내 6월 10일~12일의 江華要塞地 上陸作戰으로까지 擴大된 이른바 第1次 朝・美戰爭(6월 1일)과 第2次 朝・美戰爭(6월 10~12일)을 가리켜 「단순한 衝突事件」이라고 보는 見解와 그것은 엄연한 戰爭行爲로 보는 해석 등 두갈래 상반된 견해가 있다.

(44) *Ibid.*, pp. 408~409.

(45) "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A Naval Officer's Story." *Overland Monthly*, vol. 8(2nd Series)1886 : p. 126.

(46) *Ibid.*, p. 126.

(47)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409.

최초의 「韓美關係史」를著述한 케이블(E. M. Cable)은 『1871년의 사건을 海軍遠征(Naval Expedition)이라 부르고 싶지 않거니와, 나아가서는 朝·美戰爭이라는 명칭을 부치고 싶지도 않다. 이 사건을 「海軍遠征」이니 「朝·美戰爭」이니 부르는 것은 不當한 命名이다. 그것은 戰爭이 아니다.』⁽⁴⁸⁾라고 주장함으로써 1871년의 江華島에서 벌어진 朝·美간의 軍事的遭遇를 단순한 衝突事件으로 해석하고 있다. 美國의 大審院(大法院)(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 전쟁에 관해 定義하기를 『자기 政府支配下에 對外問題에서 두나라간에 武力에 의한 모든 충돌을 公的戰爭(public war)이라 부른다.』⁽⁴⁹⁾라는 해석을 케이블은 지지하면서도, 1871년의 海軍事件을 전쟁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를 찾아 볼수없다고 전제하면서, 江華島에서의 朝·美戰을 가리켜 「海軍騷擾事件」(Naval Incident)이라 단정하고 있었다. 케이블이 단순한 海軍騷擾事件이라 부르는 理論的 根據는 다음과 같다. 朝鮮은 宗主國인 淸에 定期的으로 朝貢을 바치는 從屬國家이며, 政治的 獨立國家가 아니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朝鮮의 獨立國家不認定에서 출발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美國은 朝鮮의 宗主國인 淸에 대해 宣戰布告를 하지 아니했다.』⁽⁵⁰⁾는데 戰爭不認定의 理論的 根據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케이블은 朝鮮은 淸의 從屬國이지 獨立國家로 볼수없다는 것이다.

朝鮮王朝時代에 朝鮮을 獨立國家이나 從屬國家이나하는 문제는 일찌기 1866년 제너럴·셔먼號 사건과 프랑스神父 虐殺(丙寅邪獄) 등에서 美·佛兩國이 淸에게 朝鮮은 淸의 從屬國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賠償要求를 했으나 淸은 『朝鮮은 朝貢國이지만 엄연한 政治的獨立國家이고 朝貢關係는 儀禮의인에 불과하다.』⁽⁵¹⁾고 주장함으로써 朝鮮에 대한 政治的責任을 回避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71년 로우가 北京에서 朝鮮政府에 美國艦隊의 朝鮮遠征의 목적을 적은 朝鮮國王에게 보내는 로우公使의 親書를 전달하는데 淸朝의 斡旋을 구했을 때도 역시 淸은 朝鮮의 政治的獨立性을 강조하면서 書翰전달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⁵²⁾ 케이블 자신도 『朝鮮의 「從屬國地位」(Vassalage)는 一種의 儀禮의인(Ceremony) 것에 불과하다.』⁽⁵³⁾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淸의 宗主權과 朝鮮의 從屬國地位를 강조한 것은 植民地史觀에 지배된 도그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가령 케이블이 「韓美關係史」를 출간한 해는 1938년이다. 이때는

(48) "I hesitate to caption the event of 1871 a Naval Expedition and much less an American-Korean war, as some writers have been bold enough to do. Both these are misnomers and do injustice to the actual facts. It was not a war." 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pp. 1~2.

(49) *Ibid.*, p. 1.

(50) *Ibid.*, p. 2.

(51) *Ibid.*, p. 2; "...Corea was formerly tributary to China, but... the only conne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one of ceremonial." George M. McCune and John A. Harrison.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 The Initial Period, 1883~188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p. 46.

(52) "...although Korea was regarded as a subordinate to China, she was nevertheless wholly independent in everything that was related to her government, her religion, and her laws." *Foreign Relations, 1871*, pp. 111~112 (No. 29, Low to Fish).

(53) Cable, *op. cit.*, p. 2.

말할 것도 없이 朝鮮은 日帝의 植民地國이었고, 日本帝國은 아시아大陸에서의 霸權을 잡고 君臨하던 日本帝國主義의 全盛時代인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 狀況에 처한 케이볼의 眼目에는 植民地 支配를 받고 있는 朝鮮은 歷史的으로 獨立國家가 아니라는 歷史解釋이 나올법도 하다.

한편 1871년의 朝·美간의 軍事的衝突事件을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者가 있다. 朝·美戰爭에 직접 參戰했었다가 나중에 美·西戰爭時에는 海軍提督이 되었던 슬레이(Schley)⁽⁵⁴⁾를 비롯하여, 1900년초에 코리어·레뷰(The Korea Review)誌를 主幹·編輯했던 헐버트(Homer Hulbert)⁽⁵⁵⁾ 등이다. 특히 헐버트는 1905년 3월호에 「1871년 小戰爭에서의 슬레이 海軍少將」(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이라는 제목의 記錄의 回想文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871년 朝·美戰爭에 參戰했던 海軍將校들도 한결같이 「小戰爭」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⁵⁶⁾

일찍이 普魯士의 軍事權威者인 클로즈벳츠(Karl von Clausewitz)는 『戰爭이란 다른 手段에 의한 國家政策의 연속이라 看做된다.』⁽⁵⁷⁾라고 주장함으로써 外交의 形態로서의 國家政策의 實施過程에서 目的達成이 실패로 돌아 갔을때, 「說得道具로서의 暴力」(violence as the instrument of persuasion)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곧 武力의 呼訴이며 戰爭行爲인 것이다.⁽⁵⁸⁾ 이러한 절박한 危機를 당하던 外交官 대신 軍隊가 이에 動員 充當되고 만다. 美國이 가담한 모든 對外戰爭이란 各其 對外政策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하려는 外交的 노력이 실패로 끝났을때 발생한 것이다. 메옌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가 『큰막대기를 들고 부드럽게 말하라』(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⁵⁹⁾라고 말한 것은 곧 砲艦外交의 전통을 이어받은 말이 라 하겠다.

「韓國海域에서의 小戰鬪, 한 海軍 將校의 이야기」(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A Naval Officer's Story)라는 文獻記述式 記事는 朝·美戰爭 15년후인 1886년에 한 月刊雜誌에 發表되었는바, 그 冒頭에서 한 將校는 『글쎄 당신은 南北戰爭이래 「최초의 對外戰鬪」(the first foreign fight)인 1871년 朝鮮과의 小戰爭을 알고 계십니까?』⁽⁶⁰⁾라고 反問하였다. 이어 한 將校는 그 당시를 回顧하면서 朝·美戰爭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나의 印象으로는 계획과 實行

(54) Schley, Winfield Scott. *Forty-Five Years Under the Flag*.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04.

(55) "Rear Admiral Schley in Korea." *The Korea Review*. Vol. I, No. 10 (October, 1901): pp. 440~445; "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 *The Korea Review*. Vol. V, No. 3 (March, 1905): pp. 97~106.

(56) "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A Naval Officer's Story." *Overland Monthly*, vol. 8 (2nd Series) 1886: pp. 125~128.

(57) Pratt, Julius W. *A History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5. p. 21: "War is regarded as nothing but the continuation of state policy with other means." Quoted in W.W. Kulski, *International Politics in a Revolutionary Age*. 2d. ed., rev. New York J. B. Lippincott Co., 1968: p. 50.

(58) Choi, Soo Bock, VII: *Korea's Response to America and France in the Decade of the Tacwongun, 1864~1873*: pp. 109~140. in Yung-Hwan Jo., ed. *Korea's Response to the West*. Korea Research Publication, Inc. Kalamazoo, Michigan, 1971(Unpublished).

(59) Pratt, *op. cit.*, p. 21.

(60) "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A Naval Officer's Story". *Overland Monthly*, vol. 8 (2nd Series) 1886: p. 125.

에 있어서 이 전투는 일반적으로 우리 海軍, 특히 美國 海軍의 指揮官과 그 麾下將兵에게 최고 의 영예가 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전쟁의 상세한 내용을 무척 알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을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시아 땅에서 벌린 최초의 순수한 美國 전투」(the first purely American battle on Asiatic soil)였으며, 따라서 우리 海兵隊와 水兵이 占據한 아시아의 한 堡壘위에 歷史上 최초로 美國國旗를 揭揚해서 필적이게 했던 전투였다. 트리폴리탄전쟁(the Tripolitan War)⁽⁶¹⁾ 이래로 멕시코에서의 경우(Mexican War)⁽⁶²⁾를 제외하고는 外國땅에서 우리의 星條旗를 휘날리기는 처음있는 일이었다.』⁽⁶³⁾라고 述懷하고 있다.

美國의 對아시아砲艦外交에서 공식적으로 軍事介入을 함으로써 戰爭을 誘發시킨 事例은 두번 있었다. 첫번째는 1832년 東南아시아 수마트라(Sumatra, 오늘날 Indonesia)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때 美國海軍水兵과 海兵隊가 수마트라를 공격, 原住民을 虐殺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두번째는 1871년 極東의 鎖國朝鮮에서의 로저스의 아시아艦隊에 의한 잔인한 전쟁이 그것이다.

우리는 兩戰爭을 對比함으로써 美國海軍의 전통적인 砲艦外交政策을 이해할 수 있다. 1832년 제슨(Andrew Jackson) 美國大統領은 美國海軍에 命令, 東南아시아에서의 후추貿易의 利權과 수마트라駐在 美國市民의 生命財産上의 보호를 구실로, 海軍艦隊를 동원 전쟁을 일으켜 原住民을 무차별 학살케 했다. 그당시 제슨大統領은 美國 議會의 승인없이 宣戰布告를 했다고 국민의 非難이 비등했다. 이것이 곧 『美國大統領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命令한 최초의 腐懲的인 海軍措置였다.』(the first executively-ordered U.S. punitive naval action against Asians)⁽⁶⁴⁾.

1832년의 수마트라戰爭과 1871년의 朝·美戰爭은 너무나 類似한 사건이었다. 즉 前者는 南北戰爭前에 일어났고, 또 美國大統領이 직접 海軍에 戰鬪를 명령했다는 것, 原住民을 大量虐殺했다는 것이다. 後者の 경우 그란트大統領이 직접 전투를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로우公使에게 朝鮮派遣全權公使라는 大權을 委任함으로써 로우公使는 大統領을 대신해서 戰鬪를 命令했다는것, 그리고 南北戰爭 直後에 莫強한 아시아艦隊를 동원했다는것, 역시 朝鮮軍民을 大量虐殺하였고, 江華要塞地에 대한 焦土化作戰을 벌렸다는 것을 들수 있다. 朝·美戰爭을 치른후 로우公使가 피쉬

(61) Tripolitan War, Barbary Wars(1801~05, 1815): 北아프리카 回教諸國(Algiers, Tripoli, Tunis)의 도움을 받고 있는 回教海賊들은 전통적으로 他國의 商船에 대한 악탈행위를 일삼아 왔고, 심지어 商船으로부터 貨物까지 강제로 徵收했던 것이다. 1801년 美國海軍은 이러한 美國의 對外通商의 위협을 除去하기로 決定, 回教海賊 소탕에 나섰다. 美國海軍은 兩次に 걸쳐서 이러한 回教海賊의 略奪行爲와 貨物徵收를 중식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海軍을 地中海로 파견함으로써 海賊을 소탕하였다. 이로써 海賊의 발호와 年例的인 貨物交拂은 중식되었다. Hurwitz, H.L. *An Encyclopedic Dictionary of American History*. Washington Square Press, New York, 1970: pp. 54~55.

(62) Mexican War(1846~48): 1845년 美國의 텍사스 合併으로 멕시코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텍사스는 텍사스 併合을 承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兩國간의 紛爭으로 말미암아 美國市民은 人命損失과 財産上의 損失에 代價 賠償을 요구함으로써 더욱 兩國關係가 긴장되더니, 드디어 전쟁이 勃發하였다. 포크(Polk)大統領은 議會에 宣戰布告를 요청함으로써 海軍出動으로 스코트(Winfield Scott)장군이 멕시코 시티를 占領, 전쟁은 중식되었다. Hurwitz, *An Encyclopedic Dictionary of American History*, pp. 440~441.

(63) "Our Little Battle in Corean Waters," p. 125.

(64) Long, David F. "Martial Thunder": The First Official American Armed Intervention in Asia." *Pacific Historical Review*, XLII (May, 1973): p. 143.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報告文에서 『本官은 追加訓令을 기다리지 않고 朝鮮은 물론 淸國에서의 우리 美國市民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危險發生을 방지하기 위하여 卽時的인 對應措置를 취하였다』⁽⁶⁵⁾라고 그의 砲艦外交의 방침을 솔직히 開陳하였던 것이다. 美國은 對外政策에 있어서 先 報復戰을 감행한 후에 事後報告를 하는 것이 하나의 傳統的인 政策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1871년 朝·美戰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VI. 江華海峽探測과 第1次 朝·美戰爭

5월 30일 旗艦 콜로라도號를 방문한 朝鮮代表에게 江華海峽探査를 하겠다고 통고하였을 때 朝鮮代表는 反對意思를 표명하지 않자 그것은 곧 「無言의 保證」(tacit assurances)⁽⁶⁶⁾으로 해석하고 로저스提督은 5월 31일 즉각 江華海峽에로의 艦隊航行의 예비작업으로 江華海峽의 海路를 探査하기 위한 探測遠征隊를 編成하였다. 이 探測遠征隊는 맥크리아(McCrea) 海軍中領이 지휘하는 砲艦 모노카시號, 로크웰(C. H. Rockwell) 海軍大尉가 지휘하는 砲艦 팔로스號, 미드(W. W. Meade) 海軍中尉가 이끄는 旗艦콜로라도號 소속 汽艇, 토튼(G.M. Totten) 中領指揮下の 콜로라도號 소속 汽艇, 마스터인 슈레더(S. Schroeder) 指揮下の 베니시아號 소속 汽艇, 그리고 海軍少領 체스터(Chester)가 이끄는 汽艇 등 砲艦 2隻 汽艇 4隻으로 編成하는 동시에 探測遠征隊의 總指揮官은 블레이크(H.C. Blake) 海軍中領이었다.⁽⁶⁷⁾ 同遠征隊는 6월 1일 正午頃 芍藥島 母艦碇泊地로부터 出航, 探査活動에 나섰다. 모노카시號는 江華海峽을 測量製圖하면서 航進하였고, 기타 汽艇 4隻은 모노카시號를 뒤따르면서 水深을 測量하였다. 江華海峽의 地形은 전연 未知狀態였고, 또 프랑스海圖에도 製圖되어 있지 아니한 水路가 있기 때문에 이를 確認探測作業을 벌이면서 運航했기 때문에 자연히 航進速度는 느렸다.⁽⁶⁸⁾

探測遠征隊는 草芝嶺 앞을 지나 德津嶺을 통과해서 손돌목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抵抗을 받지 아니하였다. 探測 艦隊에 참가했던 한 海軍將校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우리는 6월 1일 正午에 출발하였는데, 汽艇을 선두로 하여 그뒤에 팔로스號 모노카시號가 뒤따르는 一列縱隊形으로 항진하였다. 우리는 밀물(flood tide)을 타고 海峽上流로 거슬러 올

(65) *Official Documents*. No. 35. Mr. Low to Mr. Fish. On Board Flagship Colorado, Near Boisé Island, Corea, June 20th, 1871. Appended in *USKR*: p. 150.

(66) Paullin, Charles Oscar.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5 (1910): p. 475.

(67) Rodgers, John, Rear Admiral U.S.N. "Partial Report on the Military Expedition to Corea." Appended in *USKR*: p. 190: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No. 1. Mr. J. P. Cowles, Jr., to Mr. Low. United States Ship Colorado, Isle of Boisé, Corea, June 2, 1871. Appended in *USKR*: p. 146.

(68) 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p. 85.

라 갔다. 우리는 아름다운 景觀을 즐길 시간도 없었다.——朝鮮은 확실히 「아름다운나라」(a lovely country)이다——왜 나하면 우리는 測深과 角度를 재느라 너무나 바빴기 때문이다. 우리는 江華島下端에 도착할때까지 敵對인 기미를 느끼지 못하였다——江華란 이름은 매우 아름다운 名稱으로서 「江의 꽃」(Flower of the River)라는 뜻이다. 江華島 前洋에 이르자 海路를 面하고 있는 沿岸에 堡壘가 눈에 띄었다. 계속 우리는 航進, 溯上하다가 바위로 된 날카로운 岬에 접근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海流는 急旋回하였고, 이 근처는 暗礁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航路를 택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汽艇의 方向舵를 잡지 못하고 急流에 휩쓸렸다면 우리의 汽艇은 전복되었을 것이다.⁽⁶⁹⁾

이와같이 손불목까지 探測遠征隊가 航進하면서 朝鮮의 自然風光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면서 조심스럽게 運航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海峽의 兩岸은 높고,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초가지붕을 한 마을과 논밭이 보였다.』⁽⁷⁰⁾라고 朝鮮의 農村마을의 平和로운 風景을 찬탄하고 있다. 이어 한 將校는 다음과 같이 朝鮮要塞地의 첫 인상을 전하고 있다.

이 지점(손불목과 廣城津사이)은 要塞化한 곳으로 수많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그밖에는 흰옷입은 朝鮮 守備兵이 술렁이고 있었다. 사실 그 반대편에도 土壘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白衣입은 조선장병이 있었다. 나는 先頭를 달리는 汽艇에 타고 있었다. 朝鮮 墩臺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휘파르는 다른 汽艇과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었다. 나는 雙眼鏡(望遠鏡)을 꺼내어서 甲板先頭에서 朝鮮守備兵의 동정을 살폈다.⁽⁷¹⁾

朝鮮守備兵의 옷은 白衣를 입고 있었다는 것, 城壁은 土壘라는 것, 大形 黃色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쌍안경으로 목격하고, 中國人 통역자에게 그 깃발에 새겨져 있는 글자의 의미를 물어보니, 「帥字旗」 즉 朝鮮軍司令官旗임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帥字旗가 휘날리고 있는 要塞地에 朝鮮軍司令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⁷²⁾

처음에 로저스提督으로부터 探測遠征隊의 指揮責任을 부여받았을 때, 블레이크隊長은 江華海峽內에서의 探測活動을 반대하였다. 더군다나 艦砲와 曲射砲로 重武裝한 팔로스號등 載兵船을 이끌고 探測任務를 개시하면서 그는 不吉한 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노련한 海軍英雄 블레이크 艦長은 어쩔수 없이 上官令에 복종하여 探測遠征에 나섰을때, 『우리는 10분내에 싸우게 될 것이다.』⁽⁷³⁾라고 예언하였다.

(69) "Our Little Battle in Corean Waters", p. 126.

(70)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 23.

(71) "Our Little Battle in Corean Waters," p. 126.

(72)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 23.

(73)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409.

로우公使는 江華海峽(River Salée)⁽⁷⁴⁾에 로의 探測遠征隊(a surveying expedition)를 총지휘하고 있는 팔로스號의 블레이크 艦長의 通譯官에 코울즈(J. P. Cowles)를 임명, 그를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서 로우公使는 探測船團에게 朝鮮과의 交渉은 追求하지도 回避하지도 말것, 왜냐하면 美國艦隊의 朝鮮訪問目的에 關하여 이미 朝鮮代表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서울에 이르는 江華海峽의 水路를 探測하는데 우리의 平和意圖(peaceful intention)를 전했고, 따라서 모든 나라는 자기 海岸探査에 便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上陸이 不可避할 경우에는 無人地帶을 골라서 上陸하라고 지시했다.⁽⁷⁵⁾ 이러한 지시를 받고 블레이크探測隊는 6월 1일 정오에 探測任務를 개시하였던 것이다.⁽⁷⁶⁾

손돌목(孫丕項)근처의 沿岸 地勢는 急灣曲이고 海峽은 幅이 좁아서 겨우 300피트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海流의 소용돌이가 심해서 航行에 극히 위험하였다. 이러한 「좁은 灣曲部」(narrow neck)에서는 급속도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로 말미암아 비록 小船舶이라도 이러한 곳으로의 航行은 위험한 것이었다. 探測隊의 將兵은 순간 위험을 느꼈다. 이러한 곳에서 공격을 가해온다면 應戰態勢를 갖추어야 하며 雙方간에 武力的衝突이 不可避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손돌목까지의 航行探測을 하는 동안에 海峽兩쪽으로 朝鮮守備兵이 배치된 沿岸墩臺를 많이 목격하였는데 美探測隊는 이 이상의 航進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였다.⁽⁷⁷⁾ 先頭汽艇甲板에서 黃色帥字旗가 펄럭이고 있는 廣城堡를 望안경으로 注視하던 한 將校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는 순간 내 얼굴이 창백해졌으리라고 생각했어요. 軍旗가 펄럭이고 있는 가운데, 行列을 지은 朝鮮守備兵이 적어도 1,000名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두꺼운 솜을 넣은 戰服을 입고, 머리에는 戰笠을 쓰고 있었다. 땅에 槍을 꽂아 놓았고, 바로 곁에는 弓矢를 配列해 놓았다. 城壁의 銃眼(embrasures)에는 32파운드砲와 같은 大砲가 몇대 비치되어 있었다. 뿐만아니라 鎗銃(jingalls)이나 小口徑銃도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朝鮮砲는 통나무에 매어져 있었고, 아래 海峽쪽을 향해 固定되어 있었다. 맞은편 쪽에도 역시 土壘가 있었는데 그

(74) 1866년 프랑스艦隊의 朝鮮遠征時에 作成한 프랑스海圖에는 江華海峽은 수도서울로 통하는 "Salée River" 「소금강 : 鹽江」이라고 表記하고 있다.

(75) *Official Documents*. Mr. J. P. Cowles, Jr., to Mr. Low. United States Ship Colorado, Isle of Boisé, Korea, June 2, 1871. Appended in *USKR* : p. 146.

(76) 江華海峽探測遠征隊의 探測日誌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p. 126;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 23; Griffie, *Korea: The Hermit Nation*, p. 410. 등에는 6월 2일에 探測活動을 벌리다가 최초의 朝·美戰爭이 벌어졌다고 記述하였다. 한편 同遠征隊에 참가했던 코울즈의 報告文인 *Official Documents*. Mr. J.P. Cowles, Jr., to Mr. Low. United States Ship Colorado, Isle of Boisé, Korea, June 2, 1871. Appended in *USKR* : p. 146; Schley, Winfield Scott, Rear Admiral U.S.N. "Partial Report of the Engagement of June 10~11th, 1871." Appended in *USKR* : p. 198. 에는 6월 1일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筆者는 原史料인 後者의 說을 따르기로 한다.

(77) Schley, Winfield Scott, Rear Admiral U.S.N. "Partial Report of the Engagement of June 10~11th, 1871." Appended in *USKR* : p. 199.

要塞은 규모도 작고兵力도 적어 보였다. 우리는 좁은 通路(jaws of hell)(손돌목)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⁷⁸⁾

이 당시의 江華要塞地의 兵力配置와 軍備現況을 살펴 보면 우리는 江華海峽이 國防上 얼마나 要衝地임을 알 수 있다. 美國艦隊가 沁都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來泊하자 三軍府에서는 江華海峽을 防守하기 위하여 兵力을 增強하고 軍糧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沁都(江華)의 增兵添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訓局步軍 2哨, 火藥 1千斤, 手弩弓 10張, 具箭 300枝, 別破陣 300名, 禁衛營步軍 1哨, 火藥 1千斤, 手弩弓 10張, 具箭 300枝, 別破陣 10名, 御營廳步軍 1哨, 火藥 1千斤, 手弩弓 10張, 具箭 300枝, 別破陣 10名, 總戎廳牙兵 1哨, 佛狼機 30門, 具丸 2千箇, 大砲 3坐, 火藥 1千斤 등이었다. 四營步軍 各 1哨는 곧 새로 임명한 魚在淵中軍에 領付하였고, 訓局步軍 1哨는 곧 새로 임명한 判官에게 領付하였던 것이다. 軍餉 1千石은 戶曹의 儲庫所에 비축되어 있는 쌀을 劃送케 하되 舟橋司의 배를 充當원해서 江華島로 運送하게 하였던, 것이다.⁽⁷⁹⁾ 이상에서의 兵力配置統計에서 알 수 있듯이 朝鮮軍은 江華島에서의 美國艦隊의 侵略戰에 對備해서 訓局步軍, 禁衛營步軍, 御營廳步軍, 總戎廳牙兵등 최대의 兵力과 軍備 그리고 軍糧까지 充當원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江華島의 各要塞地에 增兵添糧을 하고 난후 아시아艦隊가 碇泊하고 있는 仁川 앞바다에 대해서도 경계를 엄히 하는 동시에 防守에 萬全을 기했다. 아시아艦隊가 碇泊하고 있는 芍藥島近海는 江華島로 통하는 直路이기 때문에 三軍府는 仁川府로 兵力을 增派해서 防守를 전보다 더 엄하게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三軍府는 訓局軍 1哨, 守禦營別破陣 50名을 仁川府使 具完植에게 領付하였다. 또한 各營所在의 火藥 1千斤, 鉛丸 1萬5千箇를 分排下送하였다. 한편 戶曹의 儲留米 300石을 舟橋司로 하여금 通津軍餉으로 급송하게 하였다. 사태가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危急을 告함에 兵符를 發할 필요없이 조용히 調發하였던 것이다.⁽⁸⁰⁾

6월 1일 午後 2時頃에 美國探測隊는 손돌목에 당도하였다. 한 美軍將校는 손돌목에 이르는

(78) "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p. 127.

(79) 高宗純宗實錄上 (p. 362)

高宗 8年 辛未 4月 14日條.

三軍府啓 洋舶來泊於沁都不遠之地 雖未知其意之何居 而凡於防守 尤當加意 增兵添糧之道 自臣府量宜措處 以爲及時下送何如 允之 又啓 沁都之增兵添糧 總有稟啓者矣 訓局步軍二哨 火藥一千斤 手弩弓十張 具箭三百枝 別破陣三百名 禁衛營步軍一哨 火藥一千斤 手弩弓十張 具箭三百枝 別破陣十名 御營廳步軍一哨 火藥一千斤 手弩弓十張 具箭三百枝 別破陣十名 總戎廳牙兵一哨 佛狼機三十門 具丸二千箇 大砲三坐 火藥一千斤 今將下送 而四營步軍各一哨則領付於新差中軍 訓局步軍一哨則領付於新差判官 今方發送 各自國東 隨機應援 軍餉一千石 以戶曹儲庫所在米劃送 自舟橋司船運領去之意 分付何如 允之.

(80) 高宗純宗實錄上 (p. 362)

高宗 8年 辛未 4月 15日條.

三軍府啓 仁川之於洋舶延住處 爲其直路矣 此不可不增兵防守 一增成嚴 訓局軍一哨 守禦營別破陣五十名 領付於仁川府使具完植處 京營則自臣府以密奏紙尾徵調 外營則發符合符之際 亦使之秘密舉行 火藥一千斤 鉛丸一萬五千箇 以各營所在 分排下送 聞通津軍餉不敷云 戶曹儲留米三百石 自舟橋司領運事 分付何如 敕曰 不必發兵符 今以密奏 自本府從容調發可也.

江華海峽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課業은 소금강(Salt River : 프랑스인이 그렇게 불렀다)을 探測하는 일이다. 이 강의 水路에는 岩礁 수령(mud-shoals)이 깔려있고, 波高는 30피트나 되었기 때문에, 이 일대의 航行은 危險性이 농후하다.』⁽⁸¹⁾라고 探測隊의 美國將兵은 이같이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로저스提督은 江華海峽에 까지 溯上해도 좋다고 했다. 로저스는 『江華海峽에 美國探測艦隊가 進入하더라도 아무런 危害가 없을 것이며 우리의 探測任務가 아무런 妨害를 받지 않고 任務를 끝내고 平和로히 無事歸還할 것으로』⁽⁸²⁾ 樂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로저스의 樂觀論에 대해서 일반장병들은 한결같이 悲觀論에 잠겨 있었다. 왜냐하면, 朝鮮人은 너무나 好戰的이고 排外的이며 편협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探測船團이 江華海峽으로 進入하면 공격을 가할 것으로 확신했다. 將兵들이 보기에는 손돌목은 뉴욕의 헬 게이트(Hell Gate)와 같은 最惡의 危險水路로 보였다. 한순간 불길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모든 將兵의 가슴은 고동치고 엄숙한 죽음을 앞두고 숙연했다. 急流에 휩쓸려 敵의 威壓的인 銃砲 앞에 당도한 것이다. 이제 探測艦隊는 손돌목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望遠鏡으로 朝鮮軍의 動靜을 살피고 있었던 한 將校는 순식간에 砲火의 洗禮를 豫感하였다. 그리하여 砲艦에 적재하고 온 달그렌(Dahlgren) 曲射砲에 砲彈을 장전하고, 水兵 海兵은 모두 레밍턴(Remington) 小銃에 彈藥桶을 장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望遠鏡으로 시시각각 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던 한 將校는 朝鮮軍 砲手들이 이제막 大砲에 火藥을 재고 信管에 불을 댕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⁸³⁾ 바로 이때 要塞地 頂上 帥字旗가 펄럭이고 있는 큰우산 비슷한 幕幕 밑 胸臆으로부터 一聲砲響이 손돌목 海上의 적막을 깨트렸다. 순식간에 차폐물이 걸리고 약 200門으로 推算되는 朝鮮大砲로부터 一齊砲擊이 가해졌다.⁽⁸⁴⁾ 약 15분간 바다물은 朝鮮大砲로부터 發射된 砲彈으로 얼룩지고, 바다물은 우박을 맞는 못물처럼 출렁대었다. 砲彈洗禮를 받은 美國將兵은 순식간에 一大騷亂이 되어 將兵은 右往左往하다가 옷은 함박 젖어 버렸다. 汽艇은 갑자기 暴風雨를 만난듯 海上에서 헤메이고 있었다. 이 순간에 대해 한 將兵은 다음과 같이 述懷했다. 『예 나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여기서 우리는 不意의 예기치 않았던 전쟁이 터지고 말았는데, 나는 결코 이전에 이같은 砲火의 洗禮를 받아 본적이 없었다. 더욱이나 事態가 나뻐던 것은 우리 將兵中에서 이와 같은 공격이 있으리라고 예상한 자는 없었는 것 같았다. 나는 船頭에 있는 同僚將校에게 고개를 돌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한다. 朝鮮軍은 우리에게 發砲를 하고 있다”라고 외쳤다』⁽⁸⁵⁾

약 15분간의 朝鮮軍의 美國探測艦隊에 대한 砲擊은 일찌기 南北戰爭에 참전한 海軍古參兵들도 이와같은 치열한 集中砲火를 당해본 일이 없었다고 述懷하고 있다. 探測遠征隊에 通譯官으로

(81) "Our Little Battle in Corean Waters," p. 126.

(82) *Ibid.*, p. 126.

(83) *Ibid.*, p. 127.

(84)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 23.

(85) "Our Little Battle in Corean Waters," p. 127.

從軍한 코울즈는 로우公使에게 보내는 報告文에서 다음과 같이 그 당시 狀況을 摘記하고 있다. 『江華海峽 北쪽으로 급히 航行하면서 左便沿岸에, 그리고 여러섬과 右便 本土沿岸에 무수한 砲臺를 바라보며 항행을 계속했다. 오후 2시에 우리는 北쪽 方向으로 溯上하다가 東便에 붙박 나 온 灣曲部(손돌목)를 통과하고 있었다. 우리가 뉴요크의 헬 게이트처럼 사나운 소용돌이 속으로 進入하자, 우리 汽艇을 향해 약 80發의 砲彈이 우리 라안치 汽艇內로 날아왔다. 우리 汽艇은 회오리바람과 소용돌이 속에서 즉각 曲射砲를 총동원하여 朝鮮砲臺를 향해 應射하였는데 약 80發 이상 發射한 것 같다. 위험한 항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砲艦들은 朝鮮砲臺를 향해 大砲를 겨누고 있었다. 특히 모노카시號에서는 8인치 大砲를 朝鮮砲臺로 集中砲擊하자 朝鮮軍은 도망쳤고, 그들은 무수한 軍旗를 빼어들고 峽谷이나 나무 숲쪽으로 退却하였다. 그러나 砲臺 頂上(廣城堡)에 꽂혀있는 帥字旗만은 그대로 펄럭이고 있었다.』⁽⁸⁶⁾ 이와같이 그 당시의 砲擊戰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한편 朝鮮側 資料에 의하면 최초의 朝·美戰에 대해서 너무나 담담하게 摘記하고 있다. 『京畿監司 朴永輔가 通津府使의 所報를 받아 보고한 바에 의하면 4月 14日 美國의 稍小船 2隻(모노카시號와 팔로스號)이 從船(汽艇) 4隻을 거느리고 그날 未時경에 손돌목(孫丕項)을 지나 廣城津으로 直向하였다. 당시 孫丕項은 內港의 要緊한 關防으로서 丙寅洋擾以後 防備를 엄하게 하여왔고, 비록 本國의 公私船隻도 路引이 없이는 통과하지 못하였던 바, 하물며 美國의 戰兵船이 朝鮮의 照會없이 함부로 통과할수 없는 곳이었다.⁽⁸⁷⁾ 이때 廣城鎮으로부터 大砲를 先放한 것을 信號로 通津府使는 미리 약속한대로 이에 相應, 일제히 大小諸砲를 총동원해서 砲擊한즉 美國 艦艇들도 朝鮮軍의 砲聲을 듣고 역시 大砲를 亂發하면서 無難하게 손돌목을 통과하여 갔다. 이와같이 敵軍을 철저히 防守하지 못해 황송하기 그지없다. 隘口로는 손돌목만한 것이 없고 역사 예산이 있어서 이곳에 設畵한 것이다. 처음에 美船을 摧陷하지 못하고 放過하기에 이르렀다. 節制를 해야커 보니 驚駭가 萬萬하다. 通津府使 洪在愼을 우선 罷黜하기 바란다.』라고 보고하였다.⁽⁸⁸⁾

역사상 최초의 朝·美戰爭은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朝·美兩側은 다같이 相對方의 文化的慣習을 몰랐다는 예서 이같은 紛糾가 惹起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朝·美兩國은 相對方의 習慣 慣例 思想傾向을 모르고 있었다. 말뚝 울타리위에 고양이 걸음걸듯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할곳에 沙器

(86) *Official Documents*. Mr. J. P. Cowles, Jr., to Mr. Low. United States Ship Colorado. Isle of Boisé, Corea, June 2, 1871. Appended in *USKR*: p. 146.

(87) 高宗時代史 卷 1. 國史編纂委員會 p. 557.

高宗 8年 4月 14日條.

(88) 高宗純宗實錄上 (p. 362)

高宗 8年 辛未 4月 14日條.

京畿監司朴永輔 以通津府使所報內 異樣稍小船二隻 率從船四隻 今日未時量 直向孫石項 而自廣城津先放大砲 故府使依約束相應 齊放大小諸砲 則彼船等 聞此砲聲 亦爲亂發大砲 無難過孫石項 觀此防守之道 伏不勝萬萬悚懼爲辭矣 隘口其如孫石項 設奇亦有豫算 而初未摧陷 竟至放過者 擬以節制 萬萬驚駭 故府使洪在愼 爲先關請 教曰 姑爲安忍 戴罪畢行.

廬(China shop)에 황소 튀어들듯 거칠게 튀어들었던 것이다. 美國艦隊가 江華海峽에 까지 進入하는에는 무방하다고 하더라도 要領不足으로 결국 紛爭을 誘發하고 말았다. 美國 探測遠征隊는 江華海峽을 探查하기 위하여 朝鮮의 제일 중요한 國防線(Korean Lines of defense)內로 侵入하자 朝鮮砲臺는 이에 先制發砲를 한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暴發物에 불티가 날아든 것과 같다.⁽⁸⁹⁾ 이처럼 손돌목戰鬪는 朝·美關係를 더욱 緊張으로 몰고 갔고, 相互交渉이 斷絶되게 한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朝鮮의 最大要塞地인 廣城堡로부터의 先制砲擊을 받은 美國探測船團은 艦艇에 적재하고 온 兵器를 총동원해서 一齊反擊에 나섰다. 15분간 200餘發의 砲彈을 맞고도 美軍은 戰死者가 1명도 없고 겨우 負傷者가 2名 밖에 안된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다.⁽⁹⁰⁾ 南北戰爭을 치른 노련한 장병들도 이처럼 좁은 지면과 짧은 시간에 그와같은 集中的인 砲火를 맞아본 일이 없었다. 일찌기 南北戰爭 당시 南部同盟軍(Confederates)으로부터 그의 麾下 艦艇 2隻이 擊沈당한 경험에 있는 노련한 블레이크探測隊長도 이처럼 치열한 砲火를 처음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다.⁽⁹¹⁾ 汽艇에 장치된 曲射砲는 반격을 가했고 팔로스號와 모노카시號에 적재되어 있는 大砲에서는 10인치 砲彈을 廣城堡로 發射하였다. 探測艦艇의 반격하는 大砲소리가 數마일될 芍藥島에 留碇하고 있는 旗艦에까지 들렸다. 그뒤 第2次 朝·美戰爭에서 拿捕된 朝鮮捕虜의 말에 의하면 第1次 朝·美戰에서 美艦의 반격으로 朝鮮將兵中 射殺된 자가 상당수 있었고, 負傷者는 수십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⁹²⁾ 이와같이 集中的인 반격으로 朝鮮砲臺를 격파하고 말았다.

그러면 불과 15분간에 朝鮮要塞地에서 大小砲擊을 무려 200餘發이나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美軍側의 被害는 겨우 負傷者 2명 밖에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朝鮮大砲의 機能이 前近代의인 落後된 兵器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朝鮮砲의 대부분은 後裝式大砲이고 30파운드砲가 가장 큰 大砲이고 대부분은 口徑 1인치 혹은 1인치반의 小砲였다. 이들 朝鮮砲는 1世紀前(1870年代를 기준해서) 유럽으로부터 中國에 도입된 中國大砲의 양식을 본받아 만든 것이다. 大砲의 길이가 약 4피트이고 大砲마다 2개 내지 6개의 移動式火藥桶이 달려 있고 發射할때마다 火藥桶을 裝填해서 信管에 불을 댕겨서 發射하게 되어 있다.⁽⁹³⁾ 뿐만아니라 大砲는 砲坐에 固定되어 있어서 機動性도 없었다. 이와같이 朝鮮大砲는 小口徑이고 또 射程距離도 제한되어 있었으며, 砲坐에 固定되어 있는 大砲로는 이동하는 美國探測艦艇의 目標物을 的中시킬 수 없었다. 美艦隊로부터 艦砲射擊을 받은 廣城堡의 朝鮮軍은 그 이상 공격을 멈추고 實效성이 거의 없는 老朽한 大砲를 버리고 敗走하고 말았다. 블레이크艦長은 艦砲射

(89) Poleax, Alexandis. "Where the Han Bends III. Fort Palos." *Korean Repository*. Vol. II. (July, 1895) : pp. 245~246.

(90) *Official Documents*. Mr. J. P. Cowles, Jr., to Mr. Low. United States Ship Colorado, Isle of Boisée, Corea, June 2, 1871. Appended in *USKR* : p. 147.

(91) Griffiths, *Corea: The Hermit Nation*, p. 411.

(92) Schley, *Forty-Five Years Under the Flag*, pp. 84~85.

(93) Griffiths, William Elliot. *Corea Without and Within*. Philadelphia :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95. p. 196.

擊을 중단하고 처음 계획한대로 探測活動을 계속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 모노카시號가 暗礁에 부딪쳐서 船底部分에 구멍이 났고, 漏水가 되어 船內는 물바다가 되었다. 장병들은 蒸汽 무자위(steam pump)를 作動시켜 排水하고 木材 밧밥, 펠트(毛氈) 백납등으로 漏水 구멍을 막는등 한바탕 소동을 벌렸다. 겨우 수리를 끝내고 美國探測隊는 江華海峽의 손돌목以北海上의 探測을 중단하고 母艦으로 돌아갔다. 回航할때 朝鮮砲臺를 향해 回航한다는 禮砲信號로 大砲 1發을 쏘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探測艦隊는 江華海峽下流쪽으로 이동 虎島前洋에 碇泊하고 있는 콜로라도 旗艦으로 돌아갔다.⁽⁹⁴⁾ 第1次 朝·美戰爭에 참전한 한 將校는 다음과 같이 回想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통나무에 고정되어 있는 朝鮮砲(jingalls)를 가진 朝鮮軍을 격멸할 수 있었다. 그들은 隘口에 몰려 있는 우리 함대를 향해 大砲를 쏘아대었지만 번번히 빗나가고 말았다. 朝鮮守備兵은 舊式小銃을 쏘아대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아니했다. 모노카시號로 부터 8인치 砲彈 팔로스號로부터 小銃射擊으로 朝鮮砲臺를 攻略하였다. 그리하여 沿岸의 朝鮮砲臺를 격파하고 말았다. 白衣異教徒(The white-coated heathen : 朝鮮人을 가리킴)는 이 이상 우리의 砲擊에 對抗할수 없어서 언덕과 협곡 쪽으로 敗走하고 말았다. 美國艦砲는 나사로 旋回할수 있고 大砲의 仰角이 커서 더욱 遠距離까지 사격을 퍼볼 수 있었다.』⁽⁹⁵⁾라고 述懷하였다.

손돌목戰鬪에서 朝鮮軍側 人命被害에 관한 公式的記錄에는 戰死者 1명으로 記錄되어 있다. 京畿監司 朴永輔가 通津府使의 보고를 근거로하여 다음과 같이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4月 15日 美國艦艇들은 廣城津頭에 이르러 모두 留碇하였다. 美艦隊는 廣城鎮城을 향해 大砲를 무수히 亂發하였고, 數食頃之後에 諸船이 回航해서 내려오더니, 孫石項에 이르러 또 大砲와 鳥銃을 發射하였는데 飛丸이 如雨이고, 美軍砲擊으로 德浦砲軍 吳三祿이 大砲에 맞아 負傷하더니 이로 인해 곧래 致死하고 말았다. 美國艦隊는 稍稍히 還下해서 모두 여전히 虎島前洋에 留碇하고 있었다.⁽⁹⁶⁾

朝鮮軍이 200餘發의 砲彈을 美國艦隊에 퍼부었지만 負傷者는 겨우 2名 전사자는 한사람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朝鮮軍으로부터 그토록 치열한 砲擊을 받고도 美國 砲艦이나 汽艇중에서 한척도 손상을 입은 배도 없었다. 그것은 朝鮮大砲가 粗野하고 機動力이 없었다는 것, 火藥의 性能이 나빴던 것, 숙련되지 아니한 砲手들이 함부로 발사했기 때문에 命中率이 나빴다는 것 등이 美軍側의 被害를 줄이는 원인이 되었다. 第1次 朝·美戰爭은 1861년 南北戰爭當時 섬터要塞地(Fort Sumter)에 대한 砲擊과 흡사한 전쟁이었다. 한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1톤에 가까운 납을

(94)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 23; Cabl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p. 86; "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p. 128.

(95) "Our Little Battle in Korean Waters," p. 127.

(96) 高宗純宗實錄上(: p. 362)

高宗 8年 辛未 4月 15日條.

京畿監司朴永輔 以通津府使所報內 彼船等鐵到廣城津頭 並爲留碇 向該鎮城 大砲無數亂發 數食頃之後 諸船還爲下來 及至孫石項 又發大砲鳥銃 飛丸如雨 德浦砲軍吳三祿 爲大砲所傷 仍爲致死 彼船等稍稍還下 並爲如前留碇於虎島前洋啓.

소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⁹⁷⁾

VII. 朝・美兩國의 對應

이제 第1次 朝・美戰爭에서 雙方은 치열한 砲擊戰을 주고 받았지만 사실상 그다지 큰 被害 없이 전쟁은 끝났다. 第1次 朝・美戰을 끝낸 翌日인 1871년 6월 2일 로우公使는 피쉬국무장관에게 보내는 書翰에서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우리는 朝鮮과 平和的인 協商開始를 바라고 있었지만 어제 뜻밖에 그 꿈이 깨어지고 말았다. 전번에 말한 바와 같이 모노카시號 팔로스號 그리고 기타 從船 汽艇 4隻에 探測隊員을 태우고 本土와 江華島사이의 海峽을 探查하기 시작했다. 探測作業에 출동하기 전에 本官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어느 누구에게도 危害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探測作業은 평화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의 艦艇과 그 探測隊員들이 평화적인 探測作業을 벌리는 동안 먼저 危害를 받거나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武力的 報復을 할 것임을 朝鮮代表에게 사전 통고하였다. 그리하여 本官은 알라스카號의 블레이크艦長을 同探測遠征隊를 指揮하도록 探測任務를 委任하였다. 本人의 同意와 承認下에 블레이크艦長에게 전에 언급했던 通路(江華海峽)를 따라 모든 危險을 피하면서 앞으로 이곳近海의 精確한 海峽圖를 製圖할 수 있도록 精確한 探查(taking careful soundings)와 科學的인 觀測(making such scientific observations)을 하라는 訓令을 내렸던 것이다. 만약 그의 麾下의 將兵이나 艦艇이 敵對的 攻擊(hostile attack)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격을 가해오는 攻擊場所는 물론 攻擊部隊에 대해서 武力的인 反격을 개시해서 파괴해버리라는 追加訓令을 블레이크艦長에게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兵力을 上陸시킴으로써 敵의 有利點을 차지하려고 시도하지 말 것이며, 江華島北쪽에 도달할 때까지 探查作業은 조용하게 推進할 것이며, 그러나 실제로 가능하다면 江華海峽을 溯上, 서울에 이르는 海路를 沿行하되, 首都內로의 進入을 企圖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모든 探查任務를 완수한후 旗艦으로 回航해서 探查航行推進狀況의 結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本人은 公使館書記官補로 있는 코울즈씨를 그의 通譯으로 隨行하게 했다.

同 探查隊는 12時 정각 당 정박지를 출발, 서서히 항행을 계속하면서 별다른 抵抗의 조짐을 발견하지 못한채 探查活動을 전개하면서 草芝嶺(Fort Ducont)앞에까지 도달하였다. 이곳 要塞地의 명칭은 일찌기 1866년 프랑스 로즈提督이 이곳을 遠征訪問했을때 命名한 것이다.⁽⁹⁸⁾

(97)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411.

(98) 로우報告文에는 草芝嶺(Fort Ducont) 앞에 美國艦隊가 당도하였을때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廣城臺를 草芝嶺(Fort Ducont)으로 誤認한데서 이같은 誤記가 된 것이다. 以下 廣城臺으로 번역한다.

砲艦 2隻과 汽艇 3隻(사실은 汽艇 4隻임)이 沿岸의 朝鮮 砲臺 앞으로 進入했을 때, 갑자기 은닉되어 있는 朝鮮砲臺로부터 砲擊을 받게 되었다. 本人은 여기 손물목전투의 兇貌을 상세하게 기록한 코울즈씨의 보고문을 동봉한다.

우리 艦隊은 즉각 朝鮮砲臺를 향해 反擊을 개시, 敵을 격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노카시號가 損傷을 입고 말았다. 모노카시號는 暗礁에 부딪쳐서 일부가 破損되자 블레이크 艦長은 부득이 그 이상의 探查航行을 중단하고 回航하지 않을수 없었다. 海軍長官에게도 이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보고문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朝鮮의 攻擊은 너무나 부당하고 放恣한 공격이며, 朝鮮側은 이에 대해 전혀 謝罪의 빛을 보이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艦隊의 모든 행동은 극히 신중하게 처신해 왔었다. 北京을 통해 朝鮮朝廷으로 보낸 서신에서도 우리는 平和的意圖를 밝혔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虛勢를 부리는 모든 武力誇示」(all ostentatious show of war)도 하지 아니했다. 이처럼 우리는 朝鮮에 대해 誠意를 보인 목적은 武力示威(the display of force)를 행사하지 않고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어제의 사건을 보고 本人은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朝鮮政府는 國籍如何를 不問하고, 또한 어떠한 要求條件이든 간에 모든 列強과의 交渉 革新을 任意로 단호하게 거부할 결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開港을 해서 外國人(西洋人)을 居住케 하고, 通商關係를 수립하려 하진, 또는 鎖國을 하진 간에 우리의 모든 交渉企圖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本人이 이러한 交渉을 시도한 것은 朝鮮海域에서 遭難될지도 모를 우리의 不運한 船員들에게 人道的救濟와 待遇를 보장받기 위한 것인데, 사실 朝鮮海域에서 遭難을 당할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이들 遭難船員의 安全과 厚生福利는 전적으로 半野蠻의이고 敵愾心이 강한 種族(朝鮮人, the semi-barbarians and hostile race)의 寬容의 處分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安全 慎重한 路線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 朝鮮은 우리의 探查活動을 일단 저지시킨 것에 대해 틀림없이 「洋夷敗北」(a defeat of the barbarians)라고 자기나름대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文明國의 戰爭規則에 의하면 이번의 전투는 우리 海軍의 完全勝利인 것이다. 東洋에 와있는 美國市民의 權益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아무튼 우리 美國의 國력과 威信에까지 미칠지도 모를 영향을 고려한다면, 今番의 사태를 高度의 先進基督教文明의 觀點에서 볼 것이 아니라, 東洋的인 觀點(an oriental standpoint)에 입각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지금 당장 우리 艦隊이 철수한다면, 朝鮮人의 心中에 미칠 영향, 특히 本人이 우려하는 바는 中國人에게까지 미칠 영향은 막중한 것이다. 朝・淸兩國人에게 미칠 영향의 결과, 우리 美國과 朝・淸兩國과의 長래 關係에 대한 전망이 비참한 것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 波及效果는 有害한 결과를 낳지 않을가 하는 점이다. 朝鮮은 지금 單獨의으로, 혹은 聯合勢力을 형성해서라도 여하한

西方列強勢力이라도 격퇴할 수 있을 만큼 國家가 강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단호히 拒否態度로 나올 것이다. 이와같은 견해는 淸國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 淸國도 모든 歐美居留民을 武力의으로 強制追放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정신적으로 鼓舞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前後事情을 고려해 본 결과, 本人은 우리 星條旗에 加해진 不法의行爲, 侮辱的인 行爲에 대한 補償要求를 포기하고 朝鮮으로부터 艦隊를 撤收하라고 提督에게 권고할 수가 없다. 동시에 本人은 朝鮮을 武力의으로 정복함으로써 朝鮮政府에게 「적당한 條約締結」(proper treaty engagement)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攻擊作戰(offensive operations)을 감행하는 것도 穩當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海岸의 地勢를 보니, 島嶼가 散在해 있고 沿岸의 水深은 얕으며, 波高는 20내지 40피트이고, 本土와 江華島사이의 海路(江華海峽)는 急流인 데다가, 海岸에 沿한 地勢는 山이 많고 험악하며, 항행할 수 있는 海上으로부터 首都 및 기타 主要都市까지의 거리를 고려해본 결과 상당한 규모의 陸海軍聯合兵力을 동원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리한 地勢를 극복하기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어제 우리 探測遠征隊가 被擊된 지점으로 충분한 兵力을 파견해서 江華島北端에 까지 배치되어 있는 要塞地를 占據하고, 이를 철저히 파괴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 本人의 견해이다. 提督도 조건이 허락하는 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提督은 그다지 큰 危險을 초래하지 않고도 자기 麾下의 아시아 艦隊兵力으로 이러한 作戰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宣言은 하지 아니했지만, 首都로 통하는 江華海峽의 入口를 사실상 封鎖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江華海峽 北쪽을 探測할때까지 이 海峽을 占據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大統領의 追加命令과 追加訓令을 받을 때까지 우리 艦隊는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占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措置는 결국 朝鮮政府로 하여금 條約妥結로 誘導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本人은 낙관할 수 없다.

本人은 장차 어떠한 行動路線을 追求할지 豫測할 수 없다. 여하튼 우리 政府가 本人을 이곳으로 파견한 主要目的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本人은 美國政府를 대표하여 美國政府의 國家威信과 美國國旗의 名譽에 합당하게끔 가장 平和的이고 가장 宥和的인 방법으로 本人의 訓令狀과 그 정신에 副應할 것이다. 우리 政府의 一般的政策은 平和라는 것, 이 세계의 遠隔地 朝鮮에서는 敵對的인 전쟁행위(hostile operation)는 가장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 그러나 人類를 위한 平和的的使命(peaceful mission)을 띠고 나선 政府의 代表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理由없는 攻擊」(uncalled attack)을 받고도, 우리에게 가해진 不當行爲와 侮辱的處事에 대한 損害賠償請求를 주저한다면, 이는 결국 本人의 「責任回避」(shrinking from a responsibility)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本人의 權利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말것이다. 提督도 海軍長官에게 電文을 발송하였고, 本人도 귀하에 관한 簡막한 電文을 海軍省으로 보내겠다.⁽⁹⁹⁾

결국 피쉬국무장관에게 보낸 로우公使의 편지에는 江華海峽에서의 朝鮮軍의 先制攻擊을 「까닭 없는 不當한 攻擊」(unprovoked attack)으로 간주하면서 星條旗에 입힌 모욕행위에 대한 충분한 사죄나 보상을 받지 않을 경우, 朝鮮人에게 美國艦隊를 격퇴했다는 自慢心을 고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心理的 영향은 淸國에까지 미쳐서 가뜩이나 排外感情이 高潮되고 있는 中國에서 美國市民의 生命과 財産保護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단호한 膺懲措置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로우 로저스는 美國探測遠征隊에 대한 朝鮮軍의 砲擊에 대해 크게 격분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朝鮮軍의 軍事行動은 一種의 「계획적 謀叛行爲」(an act of premeditated treachery)이며, 나아가서는 美國國旗에 대한 「故意的인 侮辱行爲」(a deliberated affront)라고 단정하고 있었다.⁽¹⁰⁰⁾

6월 1일 第1次朝·美戰爭이후부터는 朝·美間에 對話에 의한 交渉은 斷絶되고 緊張이 한층 高潮되어 갔다. 朝鮮代表의 旗艦往來도, 美國代表의 本土訪問도 불가능해져서 이제 로우公使는 6월 1일 朝鮮軍의 先制砲擊에 대한 항의를 정식으로 朝鮮政府에 전달할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다. 그리하여 朝鮮政府가 10日內로 正式謝罪를 하지 않는다면, 膺懲報復戰을 감행하겠다는 內容의 편지를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서 蔚島의 白沙場에다 꽂아 놓았다.⁽¹⁰¹⁾ 이로부터 第2次 朝·美戰爭이 勃發한 6월 10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朝·美間의 交渉은 變則的인 「장대 交渉」이 진행되었다.

1871년 6월 3일 역시 蔚島에서 富平都護府使李基祖의 편지를 매달아놓은 장대가 발견되었다. 富平府使의 편지요지는 다음과 같다. 『1868년(戊辰年) 4월에 폐비거 艦長이 平安島海域에 來泊했으나 彼此間 不詳事가 없이 평화적으로 이곳을 떠나갔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美國艦隊가 富平府 境界에 들어와서 碇泊하고 있는 것은 前者의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 우리 朝鮮王國은 東海東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美國은 西쪽 大洋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 相距가 7萬里(23,000마일)이다. 歷史以來로 朝·美間에는 일찌기 交通이 없었다. 우리가 서로 斷絶狀態로 내려온 것은 하늘의 限界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性向이 다르고 指導原理도 相異하다. 1866년의 제너럴셔먼號사건은 전적으로 美國側이 自招한 突發事件이다. 종전에 彼此間에는 惡感情이 없지 아니했다. 우리는 어찌하여 相互 怨恨과 憤慨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武器를 들고 싸워야만 하는가? 美國은 우리나라를 占領征服을 원하는지, 우리와 相談을 통해서 友好關係樹立을 원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國土와 國民을 美國에게 넘겨주기를 원한다면, 三千里江山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넘겨줄수 있겠는가? 美國은 協商을 통해서 우리와 友好關係를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4천년이래로 전해내려오는 禮節 音樂 文學등 모든 文物制度를 충분한 이유없이 一朝一夕에 파피 폐기할수 있는지 反問하고 싶다. 그것은 千不當萬不當한 일이고 語不成說이다.』⁽¹⁰²⁾

(99) *Official Documents*. No. 33. Mr. Low to Fish. Near Isle Boisé, Corea, June 2nd, 1871. Appended in *USKR*: pp. 143~145.

(100) Castel and Nahm, "Our Little War with the Heathen", p. 72.

(101) *Ibid*; p. 72.

(102)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1. Paper found attached to a pole on Guerriere Island, from the Prefect of Fuping, 3rd of June, 1871. Appended in *USKR*: pp. 154~155.

6월 3일 富平 府使의 장대편지에 대한 드루의 回信은 6월 5일에 역시 蔚島의 장대에 매달아 놓았다. 1871년 6월 5일 富平府使에게 보낸 드루書記官의 回信을 보면 드루는 로우公使의 命을 받아서 정식으로 6월 1일의 朝鮮軍砲擊을 비난하는 서신을 보냈던 것이다. 드루는 이 편지에서 美國艦隊는 平和的意圖로 朝鮮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朝鮮大官이 파견되면 언제든지 로우公使와 協商을 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兩國간의 紛爭을 平和로 해결할수 있다는 것, 美國은 朝鮮領土를 탐내지도 아니하고, 朝鮮의 禮節 音樂 文學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싶지 않다는 것, 6월 1日 사건은 「理由없는 放恣한 攻擊」이며, 이같은 무모한 공격 행위는 朝鮮政府가 承認·命令한 행위가 아니고 一般軍民이 저질른 일이기를 바라며, 따라서 政府가 승인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같은 法度を 무시한 攻擊行爲에 대한 公式謝過를 하기 바란다는 것, 6월 1日사건을 平和的 友好的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는 우리 公使가 美國艦隊에 加한 不法行爲에 대한 보상요구를 강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朝鮮政府의 處理如何에 달려 있다는것, 이러한 協商의 길이 막혀버리면 우리 公使가 好戰的態度(a war-like attitude)로 나갈지 모른다는 것, 일찌기 1868년 페비거艦長이 제너럴·셔먼號사건을 探問하러 왔을때 그가 大統領命令으로 朝鮮에 오지 아니했다는 구실로 그와 交涉을 거부했는데, 지금의 로우公使는 大統領이 임명한 朝鮮派遣全權公使의 자격으로 왔는데도 어찌하여 大官派遣을 하지않은 理由가 무엇인가고 따졌고, 아시아艦隊는 朝鮮海域으로 불과 2,3일내로 항시 출동할 수 있는 機動能力이 있으며, 朝鮮의 都邑을 攻擊 破壞할수 있으나 그러한 侵略行爲은 우리가 바라는바가 아니라는 것, 끝으로 朝·美間에 平和적이고 友好的인 감정이 永續되기를 희망하며, 만약 紛爭勃發의 事端이 있으면 武力的인 전쟁행위에 호소하지 말고 平和의 方法으로 協商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¹⁰³⁾

한편 富平府使는 드루의 편지를 접수하고 자기는 一個地方官吏이기 때문에 中央政府의 所管事인 協商問題를 云謂할 자격이 없으므로 直屬上官인 江華府鎮撫使鄭岐源에게 드루의 편지를 回送하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江華府鎮撫使와 交信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6월 7일자 로 드루에 보냈다.⁽¹⁰⁴⁾ 6월 6일자 드루에 보낸 江華鎮撫使의 편지에서 鄭岐源鎮撫使는 우선 美國은 禮節을 존중함이 다른나라보다 그 名聲이 자자하거늘, 어찌하여 그 넓은 大洋을 건너 異國을 侵犯하느냐고 비난하면서, 美國은 朝鮮人殺害를 企圖한다고 一針을 놓았다. 一國의 防衛上 關門(江華海峽을 가리킴)은 중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 關門內로 여하한 外國船舶의 出入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나라에 일반적으로 통하는 확고부동한 規則인 것이다. 美國은 善意的意圖로 朝鮮訪問을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전일 美國艦隊가 우리 海上關門(Sea-gate)內로 侵入하였기 때문에 兩國간에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美國艦隊가 도착하자 朝廷에서는 海

(103)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2. Reply of Mr. Drew to Prefect of Fu-ping, an explanation or disavowal of the attack of June 1 required, 5th June, 1871. Appended in *USKR*: pp. 155~156.

(104)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3. Prefect of Fu-Ping to Mr. Drew. Reply to foregoing will be made by his superior officer. 7th June, 1871. Appended in *USKR*: p. 157.

岸의 軍民當局에게 가능한한 紛爭이나 惡感情을 불러 일으킬만한 일은 삼가도록 경고하였다.

그러나 美國艦隊는 他國의 曠古부동한 固定法規(the fixed regulations)를 무시하고 國防上 重要海路를 侵入하자, 江華海峽을 守備하고 있었던 朝鮮守備兵은 國家防衛의 實務上 이를 坐視할 수 없어 攻擊한 것이다. 朝鮮은 「西洋諸國과의 不交涉政策은 하나의 固定不變의 原理」(the non-intercourse of Korea with foreign states is settled principle)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500년전 우리 祖先이 수립해 놓은 國家原理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羅公使가 우리와 商辦하기를 懇望하고 있지만, 美國과의 協商에 응할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先祖가 확립해 놓은 傳來의 國家政策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릴수 없기 때문이다. 東洋諸國과 西洋諸國은 자기 獨自의인 法規 行政 基本政策을 가지고 그들의 국민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서로 侵害하거나 支配하는 일이 없이 서로 調和와 繁榮의 길로 매진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江華留守는 風濤萬里의 遠洋航行을 위로하는 뜻으로 황소 3頭, 닭 50首, 鷄卵 1,000個 등을 보냈으나 드루書記官은 이를 거절하고 말았다.⁽¹⁰⁵⁾ 이와같이 江華留守는 6월 1일의 전투 행위는 유감된 일이나 그것은 朝鮮의 安保上 불가피한 措置이며 또한 正當防衛라고 주장하고 있다.

6월 7일 江華鎮撫使에 보낸 드루의 回信文에서 드루書記官은 우선 朝鮮의 友好的인 協商拒否方針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朝鮮軍이 美國探測艦隊에 대한 까닭없는 공격을 가한데 대해서 一言半句의 謝過는 커녕 오히려 이러한 軍事行動을 正當化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羅公使는 이같은 공격은 朝鮮政府當局이 承認하지 않은 行動이기를 회망했고, 그러므로 公使와 協商을 할 大官派遣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로저스提督은 6월 1일사건에 대한 腐懲措置를 취하기전에 朝鮮政府가 3,4일내로 적절한 조치(謝罪行爲)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제 朝鮮國王은 平和的인 協商과 調停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¹⁰⁶⁾ 朝鮮政府가 4월 22日(陰)에 접수한 드루의 回信에서 『貴朝廷은 우리 公使(欽差)와 友誼商論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우리 公使가 심히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다. 美國艦隊에 대한 朝鮮軍의 無端攻擊에 대해서는 그 잘못의 허물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疆臣의 職分上 당연한 행위로 보겠고, 朝鮮軍의 鳴砲之舉는 軍民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公使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大員(로우公使와 對等한 大臣)을 파견해서 로우公使와 商辦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만약 3,4日내로 貴朝廷에서 商辦할 뜻을 延接한다면 기한이 지난후에 우리 公使와 提督은 任意로 시행하겠다. 보내주신 선물은 감사하나 받을수 없다.』⁽¹⁰⁷⁾라고 강경한 어조의 書翰을 보냈다. 이처럼 美

(105)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4. Kang-Hoa high magistrate's reply to No. 2. Attack of June 1st regretted but justified. 6th June, 1871. Appended in *USKR*: pp. 157~158.

(106)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No. 6. Mr. Drew to Kang-Hoa high magistrate; his letter (No. 4) not satisfactory. 7th June, 1871. Appended in *USKR*: p. 162.

(107) 高宗純宗實錄上(: p. 363)

高宗 8年 辛未 4月 17日條.

洋書回函(二十二日 來到者)

大亞美理番合衆國實錄欽差英漢文案總辦杜(名德綏 中國人) 爲照覆事 頃奉照會敵國欽差來文 茲答大清禮部回咨副本

美國艦隊는 6월 10일이라는 메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 즉 協商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膺懲措置를 취하겠다고 威脅的인 태도로 나왔다.

한편 大院君은 鎮撫使 鄭岐源을 통하여 6월 4일(4월 17일) 美國艦隊에 다음과 같은 親書를 전달했다.

금년봄 北京禮部로부터 移咨된 貴國公使의 封函을 傳示하였는 바, 우리 朝廷은 이미 이를 論辦하였고, 回咨를 보내서 貴大人에게 轉示하기를 仍請하였다. 貴國俗을 생각해보니 禮讓을 숭상하고 평소 名邦으로 알려짐이 各國에 超出하고 또 貴大人이 事理에 明達하고, 輕遽之行을 하지 않거늘, 이제 滄溟을 遠涉하여 他國으로 深入했으니 비록 서로 殺害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怪異하게 생각하지 않으리오. 關防重地에는 外國船舶의 輒入을 허용하지 않으며, 各地의 規範은 나라마다 같거늘, 지난번 貴船이 海關을 侵犯 溯上해서 彼我間에 鳴砲 相警之舉가 일어났다. 그것에 대해 이미 우리의 好意를 전달했으며 이러한 事端의 발생은 심히 慨惜하게 여기고 있는 터다. 貴國의 艦隊가 이곳에 오고부터 朝廷에서는 沿海의 모든 官弁에게 釁端을 일으키는 일은 삼가하라고 엄히 戒飭하였다. 비록 貴國船이 他國의 規模를 알지 못하고 隘口를 侵犯해서 깊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守備와 防禦를 담당하고 있는 軍民(封疆之臣)은 어찌 편안하게 이를 坐視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난번의 사건(6월 1日 손돌목에서의 朝鮮軍發砲)을 괴이하게 생각하지 말 것이며, 혹시나 北京禮部로 보낸 回咨文을 轉示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北京으로 보낸 回咨文 副本을 보내드리니, 이를 한번 보시고 洞悉할지이다. 우리나라는 外國과 交通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五百年에 걸쳐 내려오는 祖宗의 成憲인 것은 天下가 다 아는 사실이다. 역시 大清 天子도 俯燭하고 있는바다. 그러므로 우리는 五百年 傳來의 舊典을 破壞할 수 없다. 이제 貴使가 우리의 商辦을 하고자 하나 어떤 일이든지 막론하고 商辦할 만한 사건이란 하나도 있을수 없으므로 어찌 우리의 大官을 파견해서 貴使와 相接할수 있으리오. 天地가 크고 萬方이 群生하고 含弘覆載함은 모두 其性을 이루었고, 東方과 西國(西洋)은 各修其政하고 各安其民하며, 熙熙雍雍 서로 侵奪하지 아니함은 이는 天地의 마음인 것이다. 진실로 그렇지 아니하면 위로는 天怒를 사서 祥瑞를 지 못한 일이 막심할 것이다. 貴大人은 이러한 理致를 어찌 모르는가? 風濤萬里에 航行의 辛苦를 嘉尙히 慰撫코자 菲薄之品을 보내 貴艦隊를 聊助行野함은 主人된 者의 禮儀이니라. 이를 거절하지 말고 嘉納하기 바라노라. 不宜.⁽¹⁰⁸⁾

均已上達 我欲提憲 茲奉飭覆 達此據貴來文內所稱 可見貴朝廷不欲與敵國欽差 以友誼商論所來欲辦之事 此則我欲提憲 深爲歎惜者也 至無端攻擊之事 並不論咎 而反袒護請 國臣職所應爲 在我提憲 原擬鳴砲之事 出於軍民之妄爲 貴朝廷聞之 必欲卸肩 並派大員 前來會議 皆所冀望者也 以故不遽施爲 緩期以待 若於三四日內 如無貴朝廷延接商辦之意 一俟期滿 則專聽我欲提憲 任意施行 爲期大促 略此覆陳 至承賜珍珍 足徵惠愛 感謝難名 惟不敢領情 敢此謹返 爲此照覆.

(108) 高宗純宗實錄上(: pp. 362~363)

要컨대 大院君은 美國이 禮讓을 존중하고 있는 나라로서 外國船舶의 出入이 금지되어 있는 他國의 關防을 함부로 侵犯해서 이러한 事端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지면서 外國과 交涉하지 아니하는 것은 朝鮮의 祖宗成憲이라고 말함으로써 商辦不應의 뜻을 밝힌 것이다.

上舉한 바와 같이 大院君의 단호한 不交涉政策의 宣言이 있자 朝·美間의 平和的 交涉의 可望은 바라볼수 없게 되었다. 이제 美國艦隊의 大의인 膺懲上陸作戰은 既定事實로 굳어졌다. 로저스提督의 아시아 艦隊가 江華島 上陸作戰日은 6월 10일로 정해졌다. 美國艦隊가 遠征에 出征하는 그날 美國公使에게 보내는 江華留守의 回信을 휴대한 使者가 정크小船을 타고 出征中인 美國艦隊와 海上에서 만났다. 江華鎮撫使의 마지막 편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閣下는 平和的 友好的 使命을 띠고 朝鮮訪問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 朝廷은 이에 맞는 접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朝廷은 三品官吏 問情官을 파견해서 우리와 協議할 事項은 무엇인가에 대해 問情했다. 이러한 일은 모두 禮儀凡節의 한 節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下級官吏는 우리 朝廷에 파견한 官吏가 職位가 높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公使와의 會見을 거부하고 말았다. 貴艦隊의 遠洋航行의 勞苦를 위문하러 파견했던 朝鮮代表가(5월 31일 朝鮮代表 3人 파견) 復命하기 위하여 首都 서울로 돌아오기도 전에 貴艦隊는 돌연 江華海峽으로 侵入해왔다. 貴下는 우리에게 危害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貴下가 거느리고온 艦隊는 戰艦인데다가, 各種 武器로 重武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軍民은 이에 대한 경계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슨 事端이 벌어질지 예측할수 없었다. 한 나라의 배가 다른 나라의 內海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國際間의 協定方式이나 禮法의 規則만을 가지고 關防侵入을 正當化시킬수 없다. 江華海峽은 이미 1866년 프랑스艦隊의 侵入으로 전쟁을 한 곳이기 때문에 海上防備·警戒을 엄히 하고 있다. 本人은 異樣船(美國探測船)이 갑자기 출현함으로 발생한 發砲事件과 貴國將兵을 놀라게 해준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貴國이 貴國의 領土內의 海路를 防備하는 것과 그 사정은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轉嫁하면서 謝過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일이다. 遭難船員 救護 문제를 자주 擧論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規定(柔遠之義를 가리킴)이 있으므로 그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나라와 貴國은 數萬里 격리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서로 相對國의 安寧(tranquility)을 침해하지 말아야

高宗 8年 辛未 4月 17日條.

大院君使鎮撫使 致書于洋船曰 今春北京禮部移咨 傳示貴國使封函 我朝廷早已論辦 回咨仍請轉示貴大人 且念貴國俗尚禮讓 素稱名邦 超出於各國之上 貴大人庶或明達事理 不作輕進之行 今何遽涉滄溟 深入他國 縱云無相殺害 孰不疑怪乎 關防重地 不許外船輒入 各地規範 易地皆然 昨者貴船溯上海關 致有彼我鳴砲相響之事 既云好意而有此一番事端 甚爲惋惜 自貴船之來 戒飭沿海官弁 切勿生事騷擾 雖然貴船不知他國規模 深入隘口 則封疆之臣 職在備禦 豈可恬然而已乎 昨者之事 幸勿見怪 無或北京禮部 未及轉示回咨 而貴大人 未諳吾邦各般事情 而有此舉耶 今將回咨副本送呈 庶可一覽而洞悉無餘矣 本國不與外國交通 乃是五百年祖宗成憲 而天下之所共聞也 亦大清天子之所俯燭 其不可被廢舊典 今者貴使之所欲商辦 無論某事某件 原無可商辦者 尚何待大官相接耶 天地之大 萬方群生 含弘覆載 咸遵其性 東方西國 各修其政 各安其民 熙熙雍雍 無相侵奪 是爲天地之心 苟或不然 上干天怒 不祥莫甚 貴大人 豈不知此理哉 風濤萬里 可念辛苦 菲薄之品 聊助行野 地主之禮也 勿卻酒收 是所望也 不宜.

한다. 友好關係를 원하면서, 이에 대해 장기간 協議한다는 것은, 오히려 兩國간에 紛糾만 일으키게 된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貴下는 어떤 노선이 가장 有益하며 또 無益한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귀하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貴下는 本人이 言及한 바를 깊이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가 보낸 慰問小品을 거절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¹⁰⁹⁾

이와같이 言必稱 로우公使는 平和的意圖로 朝鮮訪問을 한다고 표면에 내세우면서 실제로 重武裝한 艦隊를 이끌고 朝鮮의 國防上 가장 중요한 江華海峽을 無端히 侵入하므로 朝鮮守備兵은 이를 坐視할수 없어서 發砲하여 이른바 손돌목戰爭이 일어난 것이다. 더군다나 江華海峽은 1866년 프랑스艦隊가 두번 침범한 쓰라린 歷史的經驗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美國船이 함부로 朝鮮內海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곧 朝鮮 船舶이 美國의 國防上 緊要한 要衝地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論理가 성립되므로 이를 正當化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美國에게 적절한 措置를 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해 보았지만, 로우公使와 로저스提督은 드디어 作戰計劃을 수립하기 위하여 指揮官을 召集해서 6월 1일사전에 대한 朝鮮側의 謝罪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報復遠征」(an expedition of vengeance)⁽¹¹⁰⁾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요컨대 江華海峽에서의 美國艦隊의 항행이 한나라가 他國에 대한 侵入行爲로 해석하는 朝鮮政府의 주장과 이것은 平和的 使命을 띤 探測이기 때문에 「까닭없는 攻擊」을 받은 美國은 오히려 朝鮮側이 戰爭을 挑發했다고 해석하는 美國側 主張간에 상당한 見解差異를 드러내고 있다. 江華海峽은 歷史적으로 朝鮮의 安保上 가장 重要한 關防重地라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멀리 高麗時代의 40년간 對蒙抗爭을 벌인 軍事的 根據地가 된 곳도 이곳이었고, 朝鮮時代에 내려와서 丙子胡亂時에도 최후의 堡壘가 되었던 것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後半부터 西歐列強의 異樣船의 西海出沒이 頻繁함에 따라 朝鮮政府는 江華海峽의 守備를 중시하였고, 그러기에 江華島全體에는 堡 墩臺 砲臺 등을 무수하게 構築하고 守備를 강화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1866년 프랑스의 로즈提督이 이끄는 프랑스艦隊의 침입을 받아 一大激戰을 벌인 사실이 있지 아니한가?

江華海峽入口에 「海門防守他國船慎勿過」⁽¹¹¹⁾라는 碑石이 우뚝 서 있다. 美國探測遠征艦隊가 1871년 6월 1일 江華海峽으로 進入하면서 沿岸의 地勢 海路 海深등을 探查하면서 航行을 계속할때 艦隊의 先頭汽艇에서 海峽沿岸의 朝鮮堡壘의 動靜을 甞안경으로 偵察하였을때, 이 碑石을 보지 못했을 理 萬無하다. 그러나 美國側의 記錄文書에는 이 碑石에 대한 기사는 한글에서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甞안경으로 이 碑石을 발견해서 中國人 通譯者에게 그 뜻을 물었더

(109)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9. Kang-Hoa high magistrate to Mr. Low. in reply to No. 6, 9th June, 1871. Appended in *USKR*: pp. 164~165.

(110) "Our Little Battle in Corean Waters," p. 128.

(111) 이 碑石은 1974년 朴正熙大統領의 江華島國防遺跡復舊事業指示로 1871년 辛未洋擾時의 國防遺跡地의 復舊事業中 발견해낸 것이다. 생각컨대 「他國船慎勿過」라는 글씨가 있는 점으로 보아 1866년 프랑스 艦隊의 江華海峽 侵入當時를 前後해서 立石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라면 『이곳의 海門을 防備 守護할 것이며 모든 他國船舶은 이곳을 통과할수 없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碑石의 존재를 美國側은 완전 무시하고 있다. 이 碑石은 한마디로 여하한 外國船舶이라도 朝鮮政府의 照會와 許諾을 받지 않고는 江華海峽을 함부로 항행 통과할수 없다는 것을 端的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포울린도 1910년 「슈펠트의 朝鮮開港」이란 論文에서 『朝鮮國法에는 外國人으로서 國防上 關門(江華海峽)通過가 금지되어 있다.』(the Korean laws prohibited foreigners to pass a barrier of defense)⁽¹¹²⁾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헐버트(Homer B. Hulbert)는 1905년 그 자신이 編輯한 「코리어 리뷰」誌의 「1871년 小戰爭에서의 슬레이 海軍少將」이란 記事에서 다음과 같이 美國艦隊의 江華海峽侵入을 是認하고 있다. 『美國 星條旗가 정말로 朝鮮軍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시된다. 낯선 異邦人이 내 줄로 闖入해서 수상한 짓을 벌였으니 말이다. 나는 그 수상한 침입자에게 당장 물러가라고 명령 하였으나 그 자는 기어이 창문으로 기어올라 오므로 나는 強權發動을 해서 그의 침입을 沮止했던 것이다. 美國人이 앙심을 가지는 侮辱感은 바로 이런 경우와 흡사한 일이다. 그자는 잠시 물러났다. 그것도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이 「오만한 行動」(insolence)이라고 해서 懲罰을 당하지 않았던가! 그 異邦人의 최초의 의도는 완전히 平和的인 것이었으나, 내 견지로 판단하건대 平和的인 의도와는 완전히 違背되는 것을 한 것이다.』⁽¹¹³⁾ 이처럼 美國艦隊의 侵略行爲를 是認하고 있었다.

한편 트롤로프(M. N. Trollope)는 1901년에 「江華島」라는 記事에서 『서울에 隣接하고 있는 江華島에 대한 朝鮮人의 感受性(sensitivity)에 대해서는 이해할만 하다. 江華島는 首都서울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서울을 攻略하는데 第三關門이 되며, 따라서 海上侵略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防禦關防이 되고 있다. 일찌기 13세기 蒙古軍의 侵略時(高麗의 對蒙抗爭) 그리고 17世紀 淸侵略(丙子胡亂)時에, 최근에는 1866년 프랑스侵略(丙寅洋擾)時 등에서 이를 窺知할수 있다.』⁽¹¹⁴⁾ 한편 『그러므로 이곳은 전국적으로 가장 守備가 엄한 지점이다. 1866년 프랑스의 朝鮮遠征이후 公私를 막론하고 모든 外國船舶은 朝鮮當局으로부터의 적절한 許可가 없이는 同海峽의 出入은 금지되어 있다』⁽¹¹⁵⁾라고 스워드아웃(Swartout, Robert Ray) 박사는 지적하였다. 이러한 安保上의 重要關防에로의 進入은 확실히 朝鮮軍에 대한 美艦隊의 挑發行爲라고 케이블은 주장하였다. 케이블은 「韓·美關係史 1866~1871」에서 로우公使는 北京으로 부터 朝鮮遠征의 任務를 띠고 朝鮮으로 파견될때는 「平和的意圖」(peaceful intentions)를 가지고 왔었다. 그럼에도

(112) Paullin, Charles Oscar.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5(1910) : p. 475.

(113) "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 *The Korea Review*. Vol. V. No. 3. (March, 1905) : p. 105.

(114) Trollope, Mark Napier. "Kang-Wh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 (1901) : pp 1~36.

(115) Swartout, Robert Ray.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1871 Korean-American Incident: A Case Study in Cultural Conflict*. Unpublished Thesis of Portland State University, 1974 : p. 141.

불구하고『朝鮮軍은 美國艦隊에 無謀한 攻撃을 加해왔는데 이와같은 생각은 本人은 물론 實下도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작전은 극히 신중하게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피쉬국무장관에게 보낸 報告文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케이블은 로우의 戰爭挑發論을 제기하고 있다.『이와같은 말은 美國公使의 立場에 立脚해서는 論理的인 말이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보면 그의 주장은 대단히 불행한 結論임을 알수 있다. 事前의 許諾을 받지않고 他國의 要塞化되고 금지된 關防要害地근처로 外國의 武裝軍이 침입했다는 것 그리고 侵略당한 나라와 여하한 條約締結도 하지 아니한(未修交國)나라의 軍隊가 들어온것 자체부터가 하나의「戰爭挑發行爲」(a challenge to war) 임이 분명하다. 나는 美國探測遠征隊에 砲擊을 加한 朝鮮軍의 행위는 國土防衛의 책임을 지고 있는 守備兵의 本務(duty)에 불과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朝鮮軍은 다른 文明國家의 軍隊가 이와 同一한 條件下에서 행하게 될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¹¹⁶⁾라고 喝破함으로써 분명히 美國艦隊의 江華島侵入을 挑發行爲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리피스(Griffis, William Elliot)는 1885년 그의 「隱遁國 朝鮮」에서 케이블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로우公使는 그 자신은 平和的意圖를 가지고 平和的 探測活動을 벌리는 것이 무슨 戰爭挑發行爲냐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바로 이점이 그의 砲艦外交의 큰 失策이라고 그리피스는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의 一家見을 披瀝하고 있다.『朝鮮人의 心思로부터 우리가 손쉽게 알수 있는 것은 首都서울까지 통하는 江華海峽으로「武裝한 兵力」(an armed force)을 投入해서 항행 溯上 했다는 것, 이같은 浸透方法은 프랑스艦隊로부터 배운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江華海峽侵入行爲는 곧 평화를 강구하는 행위에 正反對되는 「反逆的인 戰爭開始」(treacherous beginning of war)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朝鮮海域안(江華海峽)으로 進入해 온다는 것은 곧 領土侵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言必稱 友好를 壯談하면서 이같은 짓을 하는 것은 가장 비열한 反逆行爲라고 볼수 밖에 없다. 만약 이처럼 江華海峽內로 前進해오는 艦隊를 맞이해서 평화적으로 交渉에 順應해서 講和를 주창하는 朝鮮官吏가 있었다면, 그자는 즉각 國家反逆者로 斷頭되었을 것이다.』⁽¹¹⁷⁾

이제 우리는 美國探測遠征隊가 江華海峽에로의 探測活動을 朝鮮當局으로부터 事前許諾을 받고 探測任務를 하였다는 주장이 그들의 가장 호소력 있는 正當性主張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5월 31일 美國旗艦 콜로라도號를 방문한 朝鮮代表 3名은 三品官이라는 下級官吏라는 사실을 美國側은 물렸던가? 이들은 美國艦隊의 動靜을 살피는 間情官에 불과하다. 따라서 江華海峽 探查活動의 特權을 허락할 만한 權能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自明한 일이다.⁽¹¹⁸⁾ 그렇다면 실사 美國艦隊가 朝鮮官吏로부터 探測活動의 허가를 받았다는 치드라도 朝鮮의 最高政治

(116) 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pp. 85~87.

(117)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409, Note.

(118) Swartout,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1871 Korean-American Incident*, p. 133.

責任者인 大院君으로부터는 이러한 探查許諾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¹¹⁹⁾ 왜냐하면 이들 朝鮮官吏가 首都서울에 올라가서 大院君에게 問情事實을 復命하기도 전에 美國探測遠征隊는 江華海峽으로 이미 출동했기 때문이다.⁽¹²⁰⁾ 5월 31일 旗艦콜로라도號를 방문한 朝鮮問情官은 어디까지나 儀禮的인 방문으로 보아야 한다. 江華海峽으로의 항행을 원한다면 서울에 있는 高位當局이나 大院君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마땅하다. 설령 朝鮮官吏가 그 당시 드루書記官에게 분명하게 探查活動을 거절했다손치더라도 로저스提督은 그가 평소 존경하는 海軍指導者(his mentor)인 페리提督이 18년전에 日本에서의 砲艦外交를 벌였던 것처럼 探測活動을 命令했을 可能性이 농후하다.⁽¹²¹⁾ 더군다나 드루는 朝鮮代表에게 노골적으로 江華海峽을 探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探測船團이 旗艦이 碇泊하고 있는 芍藥島北쪽 海上으로 항행한다고만 말했다.⁽¹²²⁾ 이런 점으로 보아 드루書記官은 本土와 江華島사이의 內陸水路인 江華海峽을 探查할 의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것이다.

VIII. 結 論

이제 우리는 1871년 6월 1일에 발생한 第1次 朝美戰爭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 兩國은 어떠한 對應措置를 취했으며, 과연 美國의 對朝鮮政策의 根本目標은 무엇인가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美國의 對朝鮮政策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對朝鮮砲艦外交이다. 그러므로 對朝鮮砲艦外交와 第1次 朝·美戰爭은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음 네가지 항목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아시아艦隊는 朝鮮海域에서 보다 안전한 碇泊地를 물색하기 위하여 探查活動을 벌렸다는 것이다. 美國 아시아艦隊가 5월 16일 長崎를 出航해서 5월 19일 南陽灣에 進入했을 때부터 로우 로저스는 처음부터 朝鮮側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하고 探查活動을 강행했었다. 旗艦이 移動航行을 할때마다 반드시 探測艦隊를 파견해서 안전한 碇泊地를 물색한 연후에 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豫備探查活動은 江華島南쪽 海上까지는 그래도 默過될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해보더라도, 문제는 江華入口부터의 探測活動이다. 美國艦隊의 朝鮮訪問의 목적은 友好的인 것이다. 이곳 碇泊地로부터 수마일 더 探查活動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太風월(the typhoon months)을 당하여 이곳보다 더 안전한 碇泊地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探查活動의

(119) "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 p. 103.

(120) *Official Documents*. Inclosure 9. Kang-Hoa high magistrate to Mr. Low. in reply to No. 6, 9th June, 1871. Appended in *USKR*. p. 164.

(121) Swartout, Robert "Cultural Conflict and Gunboat Diplomacy: The Development of the 1871 Korean-American Incident."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43 (June, 1976): pp. 155~156.

(122) *Foreign Relations*, 1871, p. 117.

正當性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探查活動의 허가를 받자 모노카시號와 팔로스號등 함대가 探查任務를 떠고 航進하였던 것이다.⁽¹²³⁾ 그러면 濟物浦以北의 江華島近海가 더 안전한 碇泊地라고 생각하였던 말인가? 로저스提督은 濟物浦近海가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가? 江華海峽은 사나운 潮流가 흐르고, 썰물이 질때면 갯벌이 앙상하게 드러나고, 밀물때를 이용하여 항행할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의문시된다. 그렇다면 아시아艦隊는 처음부터 프랑스艦隊가 침입하였듯이 江華海峽으로 艦隊侵入을 위한 예비작업으로 探查活動을 벌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陸地로 둘러싸인 濟物浦港위쪽의 芍藥島에서 태풍의 위험을 느꼈다는 사실이 바로 로우公使의 砲艦外交의 실패를 의미한다.⁽¹²⁴⁾

둘째로 아시아艦隊는 朝鮮遠征에 나설때부터 아시아大陸 특히 中國과 朝鮮에서의 排外感情(anti-foreign feeling)에 너무 敏感한 反應을 보였고, 排外感情의 擴大를 막아 보려는데 主力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朝·美戰爭에 직접 參戰하였다가 그뒤 提督이 된 슐레이는「旗艦生活 50年」⁽¹²⁵⁾이라는 回顧錄에서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朝鮮遠征은 한마디로「膺懲遠征」(punitive expedition)이었다. 그러면 무엇을 懲罰한다는 말인가? 1866년 8월 平壤 大同江에서의 제너럴·셔먼號의 燒破와 乘務員 24명 全員の 沒殺事件에 대한 懲罰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슐레이는 지적하고 있다. 1870年 天津에서의 프랑스修女虐殺事件(天津教案)⁽¹²⁶⁾이 발생한 이후 中國全域에 걸쳐 排外感情은 더욱 高潮되리라는 불안한 소문이 北京政街를 휩쓸었다. 歐美居留地 근처로 中國人을 다수 집결시키고 있다는 것, 內陸都市에 파견되어 있는 宣教師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海岸의 條約港으로 철수시키는 일 등 심상치 않은 不安感이 감돌고 있었다. 歐美列強 대부분은 自體防衛를 위하여 武器를 휴대하고 있었고 集團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었다. 列強의 莫強한 戰艦이 天津教案같은 사건이 再發하지 않도록 天津港內로 집결하고 있었다는 것은 對中砲艦外交의 一面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다.⁽¹²⁷⁾ 이와같이 中國에서의 歐美諸國의 戰艦集結에 의한 武力示威로 中國의 排外感情은 다소 누그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排外感情이 또 다시 폭발해서 第2天津教案事件이 발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그리하여 아시아艦隊의 朝鮮遠征時期를 中國에서의 不安事態가 好轉되어 가고 있는 시기를 택해서 단행하기로 결정한 것도 얼마나 排外感情에 민감한 것이었나를 反證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朝鮮에서의 제너럴·셔먼號사건에 대한 賠償要求를 주저하거나 懲罰遠征을 통하여 철저한 武力의 威壓을 하지 않는다면, 朝鮮과 淸國 兩國에서의 排外感情은 復活될 可能性이 濃厚하다고 보았다. 1866년 제너럴·셔먼號가 通商交易을 위하여 朝鮮으로 갔는데, 朝鮮의「禁止된 水域」(forbidden waters:大同江을 가리킴)內로 侵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를 파괴하고 船員을 학살하는 행위는 文明世界의 여하

(123) "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 p. 102.

(124) *Ibid.*, pp. 102~103.

(125) Schley, *Forty-Five Years Under the Flag*, especially in Chapters 8 and 9.

(126) Franke, Wolfgang. *China and the West. The Cultural Encounter 18th to 20th Centuries*. New York and Evanston, 1967. p. 81 (金源模譯「東西文化交流史」權大出版部 1977. pp. 110~111.)

(127) Schley, *Ibid.*, pp. 73~74.

한 道德律 (Code of ethics)로도 이를 正當化할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제너럴·셔먼號의 眞相探問을 지시한 美國政府의 國家政策은 腐懲의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政策이 1871년 로우와 로저스에 의한 朝鮮遠征軍의 出動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¹²⁸⁾

셋째로 朝鮮을 開港시키려던 武力行使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朝鮮에서의 不法行爲(a wrong)을 是正하고 또한 그 당시 불안한 情勢가 一般化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그것이 中國에 미칠 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朝鮮遠征計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아시아艦隊의 一般的 輿論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艦隊 將兵은 한결같이 朝·美關係의 懸案問題를 武力(force of arms)에 의하여 해결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았다. 로저스提督은 그의 側近人士들과의 충분한 意見交換을 한 끝에 朝鮮은 地政學上 世界通商路(the routes of the world's commerce)를 障礙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法과 慣例(international laws and usage)에 구속된 國家로서 그의 의무를 떠맡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朝鮮遠征에 나선 것이다.⁽¹²⁹⁾ 아시아艦隊는 出動當初부터 너무나 好戰의이고 攻撃의인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朝鮮에서의 武力의衝突을 예상하였고, 艦隊의 將兵들은 一戰을 覺悟하고 있었다. 베니시아號가 아시아艦隊의 集結地인 日本長崎로 向發하기 전부터 로저스提督이 제너럴·셔먼號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朝鮮遠征을 한다는 소문이 베니시아 艦艇內에 나돌았고, 실제로 長崎에 集結한 아시아艦隊는 實戰을 방불케하는 海上軍事訓練을 경쟁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機動訓練 實施로 艦上의 全將兵은 여하한 艱苦사태에도 즉각 動員될수 있었고, 이로써 作戰態勢를 完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軍事訓練으로 6월의 朝·美戰爭에서 機動性있게 上陸作戰을 할수있게 한 要因으로 지적할 수 있다.⁽¹³⁰⁾ 따라서 그것은 아시아艦隊의 全將兵에게 好戰的 攻撃心을 부채질하는 原因이 되었다.

가령 1853~54년의 日本開港時에는 피어스(Franklin Pierce) 大統領은 특히 地中海海域에서 名聲을 떨쳤던 美國海軍의 名將 페리提督에게 日本交渉의 全權을 부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후인 1871년에는 그란트(Grant, U.S.) 大統領은 朝鮮遠征의 全權을 海軍提督에게 부여하지 않고 文官인 로우駐淸公使에게 부여했던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朝·淸간의 朝貢關係라는 특수한 國家關係를 의식하고, 朝鮮과의 交渉을 하려면 일단 淸의 居中調停役割이 필요하기 때문에 朝·美間의 條約關係樹立(the establishment of treaty relations)의 全權을 로우公使에게 부여한 것이다. 다만 아시아艦隊司令官인 로저스提督에게는 로우全權公使를 朝鮮海域까지 安全하게 護送하는 임무만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朝鮮遠征軍의 最高責任者는 文官이라는 것, 로우公使가 北京을 떠나 朝鮮遠征의 壯途에 오를때, 中國人通譯者 2名을 대동하고 朝鮮으로 향발했다는 것은 결국 朝鮮과의 「某種 談判」(a parley)을 벌리려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이런 두가지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때 朝鮮遠征軍은 표면상 제너럴·셔먼號사건에 대한 懲罰遠征의 의도를 찾

(128) Schley, *Ibid.*, p. 77.

(129) "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 pp. 98~99.

(130) Schley, *Forty-Five Years Under the Flag*, p. 77.

아볼 수 없었고, 「完全히 平和的任務」(an entirely peaceful mission)⁽¹³¹⁾를 띤 使節團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美國行政府, 특히 피쉬를 首班으로 하는 國務省의 意圖는 談判만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로우公使와 로저스提督과의 相對的인 紐帶關係에서, 나아가서는 國務省과 海軍省과의 相互關係에서 약간의 見解差異가 엿보인다. 우선 로저스提督은 페리提督과 마찬가지로 地中海艦隊에서 활약한 바 있고, 南北戰爭의 主要指揮官으로 「外交의 未備點을 武力으로 補完시킬 精確한 時期」(the exact moment to supplement diplomacy with force)를 알고 있는 노련한 海軍提督이다.⁽¹³²⁾ 아시아艦隊에 소속된 베니시아(Benicia)號가 1870년 겨울 日本에 滯留하고 있을 때 『美國政府는 美國스쿠너船 제너럴·셔먼號와 관련된 朝鮮事件(the affair in Korea)을 조사할 것이다.』⁽¹³³⁾라는 소문이 艦艇內에 퍼졌다는 것이다. 물론 제너럴·셔먼號 사건에 대한 謝罪 또는 損害賠償을 요구하라는 政府의 公式的인 訓令이나 命令을 로우全權公使에게 내렸다는 기록은 없거니와 이를 믿을 수도 없다. 우리는 他人에게 무슨 請을 할 때 相對方이 저지른 과거의 非行을 건드려가면서 부탁의 말을 꺼낼 수 없다는 論理가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¹³⁴⁾ 그러나 美國 海軍省當局과 아시아艦隊의 로저스提督은 로우公使와는 상반된 好戰的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로우公使의 平和的 交涉企圖는 挫折될 公算이 컸던 것이다. 로우公使가 北京을 출발할 때 朝鮮遠征의 任務遂行의 성취에 대해 그것은 「可望없는 事件」(a hopeless case)⁽¹³⁵⁾이라고 悲觀論을 披瀝한 것도 이를 端的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의 朝鮮遠征은 출발시부터 그 前途가 暗澹했다. 美國 海軍은 窺대놓은 朝鮮人의 무릎을 꿇리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인가 朝鮮과의 「某種의 小戰鬪」(a scrimmage of some kind)를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³⁶⁾ 이러한 好戰的 태도는 아시아艦隊의 將兵에게도 공통적인 감정이었다. 朝鮮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릇된 우려, 바로 이점이 朝鮮遠征任務를 평화적으로 成就시키는데 가장 큰 障礙要因으로 지적할 수 있다.

넷째 美國探測遠征艦隊가 6월 1일 江華海峽에로의 航行·進入은 侵略的 挑發行爲이며, 그것은 朝·美戰爭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江華海峽에서의 探測活動에 대해서 美國側은 事前 許諾을 받았고, 平和的인 探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平和的 探測活動을 벌리고 있는 美國艦隊에 대한 朝鮮軍의 先制攻擊은 不法的인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朝鮮側은 1866년 프랑스艦隊의 江華海峽侵入이래로 여하한 外國船舶이라도 출입을 不許한다는 「海門防守他國船慎勿過」의 碑石이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美國함대의 江華海峽進入은 엄연한 領土的 侵略 挑發行爲이며, 따라서 美國艦隊에 대한 공격은 正當防衛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

(131) "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 p. 99.

(132) Schley, *Forty-Five Years Under the Flag*, p. 74.

(133) "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 p. 98.

(134) *Ibid.*, p. 102.

(135) "Rear Admiral Schley in Korea." *The Korea Review*. Vol. I, No. 10 (October, 1901) : p. 442.

(136) "Rear Admiral Schley on the Little War of 1871," p. 99.

나 江華島는 역사적으로 朝鮮의 國防上 가장 중요한 關防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것은 易地思之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論理이다. 즉 美國探測艦隊가 安保上 중요한 江華海峽으로의 항행이 침략행위라면, 朝鮮艦隊가 뉴욕크의 허드슨 江內로의 침입을 했다면 역시 엄연한 領土侵略行爲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朝・美戰爭이 勃發한지 7년후인 1878년에 켈리포니아州 出身 上院議員이며, 上院 海軍問題委員會 委員長(Chairman of the Senate Committee on Naval Affairs)인 사전트(Aaron A. Sargent)는 朝・美戰爭의 불씨가 된 美國探測艦隊의 江華海峽侵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우리는 우리와 條約을締結한 나라(修交國)일지라도 그 나라의 船舶이 우리 海域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제임스(James) 江이나 기타 다른 江들을 測量・調査하도록 容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探測作業에 가장 過敏한 국민이 있다. 즉 한편으로는 러시아, 또 다른 한편으로는 中國으로부터의 侵略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의 國家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鎖國 孤立政策을 固守하고 있는 이 나라(朝鮮)는 험난한 獨立國家를 유지해 오고 있다.』⁽¹³⁷⁾라고 사전트는 분명히 美國探測艦隊의 江華海峽航行을 侵略行爲라고 규정하면서 이어 그는 『江華海峽을 守備하고 있었던 朝鮮軍은 美國侵略軍에게 警告의 뜻으로 發砲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海軍省記錄에도 나타나고 있다.』⁽¹³⁸⁾라고 지적함으로써 朝鮮軍의 先制發砲가 「까닭없는 攻撃」으로 규정, 이에 대한 膺應措置로 上陸作戰(第2次 朝・美戰爭 1871年 6월 10~12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트는 로우公使와 로저스提督과는 달리 朝鮮軍의 發砲는 「警告發射」로 해석함으로써 그들과 相反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1) 아시아艦隊는 朝鮮海域에서 보다 안전한 碇泊地를 물색하기 위하여 探測活動을 벌였다는 것, (2) 朝・淸兩國에 있어서의 排外感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나친 膺應措置를 취했다는 것, (3) 鎖國朝鮮을 開港시키려면 武力的 威壓手段이 아니고는 朝鮮과의 立約은 不可能하다는 것, 그러므로 아시아艦隊는 朝鮮遠征 당초부터 지나친 好戰的 攻撃의 態勢를 취했다는 것, (4) 江華海峽은 朝鮮의 國防上 가장 중요한 關防要塞水路이며 外國船舶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探測艦隊는 이를 무시하고 江華海峽을 침입한 것은 挑發的 侵略行爲라는 것 등 네가지로 戰爭勃發原因을 분석해 보았다. 요컨대 朝鮮遠征의 최고 책임자는 로우公使이지만 艦隊移動은 시종일관 아시아艦隊 司令官 로저스提督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간과할수 없다. 로저스는 18년전 페리提督이 日本開港時에 쓰던 手法을 그대로 踏襲하였다는 것이다. 즉 艦隊가 도착하면, 안전한 碇泊地를 찾기 위하여 探測活動을 벌리고, 沿岸探查를 하며 武力的示威와 有事時에는 武力行使를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開港시키는 이른바 砲艦外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朝鮮遠征時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37) *Congressional Record*, 45th Cong., 2nd Sess., April 17, 1878, p. 2601, for Sargent's Comments.

(138) *Ibid.*

1854년 日本의 狀況에 비하여 1871년 朝鮮의 政治的 社會的 여건은 開港을 하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불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第1次 朝·美戰爭의 결과 美國側은 朝鮮軍側의 先制攻擊에 대한 公式的 謝罪를 요구하였고, 公式的 謝過가 없으면 懲罰的인 上陸作戰을 하겠다고 위협했고, 朝鮮側은 江華海峽에서의 探測活動은 엄연한 領土的 侵略 挑發行爲로 간주, 探測艦隊에 대한 砲擊은 正當防衛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시아艦隊는 10日後인 6월 10~12일 懲罰的인 上陸作戰에 나섰던 것이다.